

Contents



작품명 : 배 / 기법 : oil painting
규격 : 100 x 90cm(40호)



서양화가 **이 중 갑** (58회)

- 한국현대미술대전 (대상수상)
- LA올림픽국제전(winner상 수상)
- 한국현대 판화공모전(우수상수상)
- 대한민국 국선(특선.입선)
- 국내외초대전 (50여회출품)
- 국내외개인전 6회
- 남서울대학교 교수, 학과장 역임

啟聖同窓會報

창간 1952년
(제67호)

인쇄일 : 2020년 12월 30일
발행일 : 2021년 01월 10일

발행인 : 이 재 윤 (총동창회장)
편집인 : 오 달 현 (총동창회 사무총장)

발행처 : 계성학교 총동창회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37, 811호
우)41927
전화 : (053)255-3900
전송 : (053)256-4942
전자우편 : keisung1906@hanmail.net
인쇄처 : 금성기획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96, 신한빌딩
2층 우)03995
전화 : (02)333-4292

발간사

04 총동창회장 이재윤(56회)

축사

05 계성고등학교 교장 박현동(67회)

총동창회 소식

10 2020년도 총동창회 정기총회 신년교례회 개최
재경동창회 신년하례회 개최
총동창회 회장단 회의 및 이사회 개최
이재윤(56회) 총동창회 회장
장성필(73회) 총동창회 부회장
익명 기부자(43회) 동문
이강철(53회), 김진도(55회) 동문 총동창회장과 오찬 나눔
총동창회 기별 등반대회 개최
이재윤 총동창회장 초청간담회



현장

16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한 계성인
김상태(58회) PHC 대표이사 회장
재경동창회
나주영(62회) 제일테크노스(주) 대표이사
75회 동기회

18 비밀결사 해성단과 계성학교- 송호상(69회)

동문 기고

20 故 최연호(52회) 동문 추모글
이종민(69회) 매일신문 선임기자 '느릅나무'
조국래(74회) '그녀... 사랑하는 나의 할머니'

동문 인터뷰

26 화제의 계성인
고동현(57회)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권재일(59회) 한글학회 회장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사열(63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장관급)
노태약(68회) 대법관

김재엽(70회) 동서울대학교 경호스포츠전공 교수

특집 기고

40 포스트 코로나 - 이수남(50회)

기별소식

44 42회 ~ 92회

지역 동창회 소식

60 재 경주/ 재 대전 / 재 뉴욕/ 재 진주

동호회 소식

64 계성 마라톤 동호회/ 계성 목장회 / 계성 산우회/
아담스 야구단

동문동정

건강칼럼

73 요통 및 하지통에 대하여 - 길태영(80회)

신간소개

75 손중철(45회) 『나의 선교 이야기』
박재천(50회) 『77힐링 시선집』
이병구(53회) 『석세스 애티튜드』 영문판
정만진(61회) 『의열독립운동 40년사』
권준수(65회) 『나는 왜 나를 피곤하게 하는가』
김주노(65회) 『2·28민주운동 영문번역서』
박화진(69회) 『초록이 흐르는 계절 바람이 분다』
[계성문학] 2021년 제36호

동문 기고

78 108대 학생회장 석민서

모교소식

80 고등학교



남부내역

84 계성동창회보 구독료 납부 현황



박 태 준 (5회) 졸업
[1900년 ~ 1986년]
(전)연세대학 음대 학장, 작곡가

한국 서양음악의 선구자
작곡가 박 태 준 영예음악박사

1900 - 1986



계성 동문 및 계성 가족 여러분

지난 경자년(庚子年)한해는 여러 가지로 우울한 한해였습니다. 동창회 체육대회와 Golf 대회도 못 치르고 신년교례회마저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동문 여러분이 더욱 그립고 안부가 궁금합니다. 나라에서도 코로나에 대한 방지계획이 없어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신축년(辛丑年)에는 코로나를 떨치고 소처럼 부지런히 일하고 싶습니다. 소나기는 피하라는 말이 있듯이 동문 여러분께서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어 내년에는 예년 못 지 않는 활발한 동문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던 중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대학진학 성적이 훌륭한데 이어 금년도 고등학교 신입생을 100% 모집했습니다.

현 박현동 교장선생님과 여러 관계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입니다. 동문 여러분의 가족의 화평과 건투를 빕니다.

계성학교 총동창회 회장 **이재운 (56회)**

‘계성’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성’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7만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성고등학교 21대 교장 박현동입니다. 저는 34년 동안 공립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경상중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 모교의 부름을 받고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올해 교문을 들어설 때 50계단 아래에서 헨더슨 관을 바라보며 계성고등학교의 교장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아울러 ‘계성’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언제 들어도 가슴 벅찬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지금도 노심초사하며 교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실시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학생·학부모의 기대와 요구가 남달라 교육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다른 학교보다 몇 배는 힘들었습니다. 먼저 수업에서는 전국 교원의 5%만이 실시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우리 학교에서는 전 교원이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본교는 국제 바칼로레아(IB) 고등학교 프로그램(DP)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후보 학교 인증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IBDP 과정은 고등학생들에게 대학에서 학문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설계된 종합적 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계성의 새로운 100년에 걸맞은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며 동시에 미래형 창의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0 교육활동 유공학교(기관표창)에 선정되어 교육감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익명을 요구한 한 동문의 장학금 기부로 다시 한번 ‘계성’의 교육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 서울에서 대구로 피난하여 학적 문제로 전학이 여의치 않았는데 계성학교에서 흔쾌히 받아줘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연과 함께 당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장학금 300만원을 학교에 기부하였습니다. 이는 '배움에 주려 울고 있는 자 여기와 배부름 얻으라'는 계성의 설립 이념이 구현된 사례로 64년 전 가난으로 인한 학업 중단 위기 속에서 전해진 기적 같은 장학금이 송고한 뜻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성은 새 시대를 선도하는 학교로 그 역량을 모두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 모교가 빛나는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느 곳에 있더라도 ‘계성’을 잊지 마시고 언젠가는 다시 교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문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하며 인사말을 이만 줄이겠습니다.

계성고등학교장 **박 현 동** (67회)





KEISUNG Alumni VOL 67

총동창회소식

핸더슨관 전경

(1931년 11월30일 완공)





2020년도

총동창회 정기총회
신년교례회 개최

400여 동문 참가, 즐거운 이야기 꽃 피우며 동문 간 우애 나눠

〈자랑스런 계성인상〉에 진영환(52회)동문 선정

총동창회 2020년도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가 2020년 1월 9일 오후 7시 대구 인터블고호텔 컨벤션홀에서 40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오달현 사무총장의 사회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계성목장회 회장인 박재호(53회) 목사의 기도와 국민의례에 이어 개교114주년의 해를 맞아 동문 모두의 건승과 만수무강을 염원하는 신년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란 구호와 함께 서로 마주보며 인사를 나누었다. 특히 이날 100세의 이형두(30회) 전 교장이 참석해 주위 후배들의 인사를 집중적으로 받았다.

이재운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자년 새해를 맞아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대번영이 깃들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모교가 이전한 서부지역이 이제 대구발전의 축이 되고 있다”면서 “올해 자랑스런 계성인 선정위원회는 동창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모교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면서 “대구상공회의소장을 역임한 진영환(52회) (주)삼익 THK대표이사 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창달 명예회장의 격려사와 현창용 모교 교장의 모교소식에 이어 이병구 계성장학회장은 장학회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동문 1인당 1만원을 모금하기”를 제안하기도 했다. 시상식 순서에 따라 진영환 동문이 ‘2020년 제4회 자랑스런 계성인상’을 수상했다. 그동안 총동창회의 감사로 회의 발전에 기여한 박연탁(50회), 이진복(69회) 동문이 각각 ‘2020 총동창회 감사패’를 받았다. 이어 감사보고와 총동창회 및 계성장학회 결산보고가 있었고 신년도 예산은 이재운 회장이 맡아 진행했다.

2부 순서는 교가제창, 축하 케이크 절단에 이어 바리톤 최덕규(83회) 동문의 축가가 있었고 조준제(47회), 손용식(60회), 반응석(69회) 동문들의 건배제외가 참가동문의 흥을 돋우었다. 이날 참가한 동문은 만찬을 하며 오후 9시 30분경 총회를 모두 마쳤다. 한편 차기 집행부 선출을 위한 방법, 계성장학회 운영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응답 시간에 동문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예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 자랑스런 계성인상 시상 진영환(52회) 동문



▲ 자랑스런 계성인상 시상후 52회 동문들과

재경 동창회 신년하례회 열어/2020년 2월 7일

80여 명 참석, 홍순호(60회) 동문 회장으로 선출

코로나19의 심각한 상황 속에 재경 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가 2020년 2월 7일(금요일) 강남 엘타워 별관에서 8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가지고 전진우(59회)재경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윤동한(52회) 동문의 축사,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참석한 이병구(53회)장학재단 이사장의 인사말, 예.결산보고, 감사보고, 재경 회장 이.취임식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그동안 재경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전진우 회장의 후임으로 홍순호(60회) 동문이 선출되었다. 홍순호 동문은 “앞으로 동문과 동창회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포부를 밝혔다.



총동창회 회장단 회의 및 이사회 개최/2020년 6월 9일

장학회 운영에 동문 협조 구해

그동안 코로나19사태로 잠정 중단되었던 총동창회의 모든 활동이 올해 첫 일정한 회장단회의 및 이사회 개최를 재개 하였다. 지난 2020년 6월 9일 덕영치과 7층 대연회장에서 이재운 총동창회장, 유기남(고 교목) 박현동 (모교 교장) 외 72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유기남 목사의 기도와 총동창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이날 이사회는 박현동 모교 교장의 학교현황, 총동창회의 안건심의, 총동창회 등반대회, 골프대회, 파크골프대회 일정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효과적인 장학재단 운영을 위해 동문들의 협조가 더욱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동창회에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끝없는 후배사랑 모교 발전기금 기탁으로 이어져

이재윤(56회) 총동창회 회장 모교 발전기금으로 삼천만 원 기탁

이재윤(56회) 총동창회 회장이 2020년 5월1일 덕영치과에서 모교 발전기금기탁식을 가지고 (삼천만 원)을 기탁하였다. 또한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별도의 격려금(오백만 원)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그동안 모교에 4억여 원을 기부한 이재윤 총동창회장은 매월 모교 도서관에 신간 30권씩 10여 년간 기증하였다. 이 자리에는 박현동(고 교장)문영배(고 교감) 정연석(고 홍보부장) 총동창회에서는 김정길(상근 부회장) 오달현(총동창회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장성필(73회) 총동창회 부회장 학교발전기금으로 삼천만 원 기탁

주)화성밸브 부사장이며 총동창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장성필 동문이 2020년 4월 22일 모교를 방문하여 학교발전기금(삼천만 원)을 모교(교장.박현동)에 기탁하여 모교와 후배사랑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동안 장성필 동문은(2016년 1억을 기증하고 2017년 1천만 원, 2018년 1천만 원)을 기탁 한 바 있다.

후배사랑이 계성의 사랑이다

익명의 기부자(43회)동문 “1억기부 약속”

익명의 기부(43회) 동문은 6.25전쟁의 포화 속에 서울 송실학교에서 대구로 피난길에 오른 동문은 학적문제로 전학이 여의치 않았는데 유독 계성학교에서 입학할 허락하여 학업을 이어 갔다.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동문은 담임교사로부터 두 차례의 장학금을 받았지만 두 번째 장학금 수령 후 잘못 지급된 사실을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장학금은 한 선교사가 “목사의 자녀에게 전달해 달라”며 학교에 맡긴 기부금이였다. 이 동문은 “학업을 마치고 싶은 욕심에 착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학금을 받았다”며 박현동(고 교장)과의 통화에서 받았던 장학금을 코로나 때문에 학업이 어려워진 후배들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했다.

인터뷰 요청을 사양하고 “조용히 진행하려는 나의 마음이 아니라서 사양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1965년 계성학교 43회로 졸업한 익명의 기부자 동문은 서울대를 거쳐 자수성가해 64년 전 잘못 받은 장학금을 모교에 300만원을 기탁하고 차후 1억 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현동 모교교장은 “어려운 시절의 도움을 잊지 않고 보내 주신 기부금이기에 더욱 감사하다”면서 “돌아온 장학금을 뜻 깊게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철(53회), 김진도(55회) 동문 이재윤(56회)총동창회장과 오찬 나뉘/12월 4일

장학회 발전 방향과 학생 선발 어려움 공감해

(전)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을 역임한 이강철(53회) 현KT사외이사 동문과 김진도(55회)대한유도협회 회장 황금식(55회)동문이 2020년 12월 4일 이재윤 총동창회장(김정길(56회) 총동창회 상근 부회장 배석)을 방문하여 오찬을 가졌다. 장학회의 원활한 소통 발전의 필요성과 격리된 위치에서 고등학교 학생 선발의 어려움 등을 나눴다. 한편 자랑스러운 모교 동문들의 근황을 나누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좌측부터 황금식(55회), 이강철(53회), 김진도(55회), 이재윤(56회), 김정길(56회)]

총동창회 기별 등반대회 개최/6월 21일

많은 동문 참여, 와룡산 코스 일주

동창회의 전통인 제22회 기별 등반대회가 지난 2020년 6월 21일 이재윤 총동창회 회장, 박현동(고 교장)등 170명의 동문 기별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상리동 모교에서 개최식을 가지고 풍경이 빼어난 와룡산 코스를 일주하는 시

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코로나19의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총동창회 첫 행사로 이재운 총동창회장은 등반대회에 참석한 동문들을 격려하고 푸짐한 선물을 전달하는 등 물심 양면으로 지원 하며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재운 총동창회장 초청간담회/12월21일

총동창회 부회장, 동호회 회장단과 간담회 가저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하여 크고 작은 동창회 행사가 취소됨을 아쉬워 하며 2020년12월21일 이재운 총동창회장 초청으로 식사자리를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한 동문들은 동창회와 학교의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고 있음에 관심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건의 하였다.

장학재단이사 임기 및 추천의견 ,수석부회장 선임의견, 젊은 기수의 동창회 참여 독려의견, 장학재단의 역할 및 중요성에 강조하는 등 여러 의견을 나누고 특히, 대구지역 타(영남대.경북고.대구고.대구상원고.대륜고)학교 장학회 “는 “총동창회장이 이사장직을 겸임하여 동창회를 운용 하고 있다”고 비교 설명하면서 정상적인 장학기금 모집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장학재단 운용을 비판하고 보다 활발한 장학재단 운영 위해서는 “총동창회장 과 장학재단이 사장 겸직 및 현 이사진 교체, 장학회 정관수정”등을 통하여 총동창회 및 모교지원 사업 등을 장학재단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참석동문 들이 동창회에 강력하게 건의 했다.

이날 참석동문은 다음과 같다.



총동창회 회장
이재운(56회)



총동창회 상근부회장
김정길(56회)



총동창회 부회장
손용식(60회)



산우회 등반대장
이인직(60회)



총동창회 부회장
안승철(63회)



총동창회 부회장
김진결(65회)



산우회 고문
오상달(65회)



총동창회 부회장
반용석(69회)



총동창회 감사
이진복(69회)



총동창회 부회장
장성필(73회)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동참한 계성인



김상태(58회) PHC 대표이사 회장 5억 원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

PHC (대표이사 김상태)는 2020년3월11일 코로나19 예방과 방역 긴급생계지원 등 위기극복을 위한 5억 원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PHC와 계열 회사는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체감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이번 성금을 기탁 하였다. 김상태 회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 작은 손길을 보내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며 국채보상운동으로대표 되는 대구시민의 정신을 살려 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재경동창회 코로나19 성금 3천만 원 전달

재경동창회(회장 홍순호(60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련 대구,경북지역 취약계층의 위생용품 및 생필품 지원,의료비 지원 등을 위해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성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

홍 회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있는 가운데 방역에 힘쓰는 의료진 및 관계자들에 응원을 보낸다”며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의 피해복구 및 지원활동에 뜻있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영(61회)동문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돼 활기찬 지역사회 되길”

포항의 향토기업인 제일테크노스(주) 대표이사 나주영(61회) [좌측] 2020년 3월 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포항시민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포항시에 성금을 2천만 원을 기탁했다. 나 대표는 이날 이강덕 시장에게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는 포항 지역 감염병 확산방지 및 자가격리자들의 안정적인 회복과 고통 받고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지원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75회 동기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전달”

75회 동기회(회장 황정훈)가 대구지역 코로나19 조기퇴치를 기원하면서 동기들 대상으로 모금한 성금 350만원을 대구지역 거점병원인 대구동산병원에 코로나19 치료 장비 구입에 써달라며 성금전액을 기부했다.



대구 최초의 비밀결사 계성학교 “혜성단”

대구 학생들의 만세시위를 선도하고 확산에 크게 기여



송호상 (69회)
동양대학 교양학부 교수

한말 일제강점기 개신교계 선교사들은 선교의 방편으로 이른바 신식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이 학교의 조선인 교사와 학생들은 이른바 신식 교육과 개신교 신앙을 매개로 민족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저항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계성학교는 대구 경북지역에서 이러한 의미를 지닌 대표적인 학교로서 일제강점기 54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하였다.

계성학교와 관련된 대표적인 민족운동이 대구 경북지역의 3.1운동과 “1919년4월17일 결성한 혜성단(慧星團)”사건이다. 계성학교 교사로 활동하던 이만집, 백남채(3회), 최경학(2회), 김영서, 김태식, 등은 만세시위를 주도하였고, 김수길(8회), 이영식(8회, 대구대설립자), 허성도(8회), 이기명(8회), 이진식 등은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시위에 적극 참여하였다.

격렬했던 만세시위가 일제의 탄압으로 실패한 상황에서 주도했던 목사와 교사들이 체포되고 학교에는 휴교령이 시행되는 상황 가운데 학생들은 비밀결사를 통해 철시(撤市)운동과 혜성단을 결성하여 투쟁을 이어 갔다.

김수길 등은 일제의 경제침탈에 저항하는 방법으로 조선 상인들에 대한 폐점과 철시투쟁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남산정 박준이 의 집에서 ‘죽음으로서 조선의 독립을 관철할 것’이라는 제목의 경고문을 인쇄하여 대구 시내에 붙였다. 그리고 대구경찰서장에게 3월 8일 대구시위를 탄압하고 무고한 동포를 검거하였는가? 비판하면서 암살할 기회를 보고 있다는 ‘협박문’을 보내었다. 그리고 대구성 휘철(毀撤)을 주도하는 등 대표적인 친일파였던 박중양 이 자제단을 만들어 만세시위를 저지하고자 했던 일을 규탄하면서 ‘조선민족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놈’들이기에 암살 ‘해야 한다는’ 경고장’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격문활동에는 선산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하고 대구로 피신해 왔던 최재화도 적극 가담하였다.

이들은 중앙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에서 김약수, 김원봉 등과 의형제를 맺고 활동하였던 이여성과 함께 4월 17일 대구 한세동의 방에서 모임을 갖고 ‘혜성단’을 조직하였다. 독립을 위해서는 문서 출판을 통해 민심을 계몽하고 만주지역 독립운동단체와의 연대를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에 본부를 두고 서울과 상주, 기타 각지에 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인쇄계, 배달계, 출판계, 만주출장소, 연락계 등의 조직을 두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 일본물자 배척, 조선인 관공리의 사직 강요, 조선인 상인의 폐점 명령 등의 내용을 담은 경고문을 작성하여 발송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운동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가들에게도 경고문을 배포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만주지역 독립운동단체와 연대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혜성단은 조직 결성 이후 3차례에 걸쳐 격문배포활동을 하였다. ‘동포에게 경고함’ ‘삼가 동포에게 알림’ 등의 격문을 2~3백매씩 등사 인쇄하여 대구부의 일본인과 조선인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리고 ‘관공리 동포에게 경고함’ 이란 격문을 도내 각 군수를 비롯한 관공리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동참을 촉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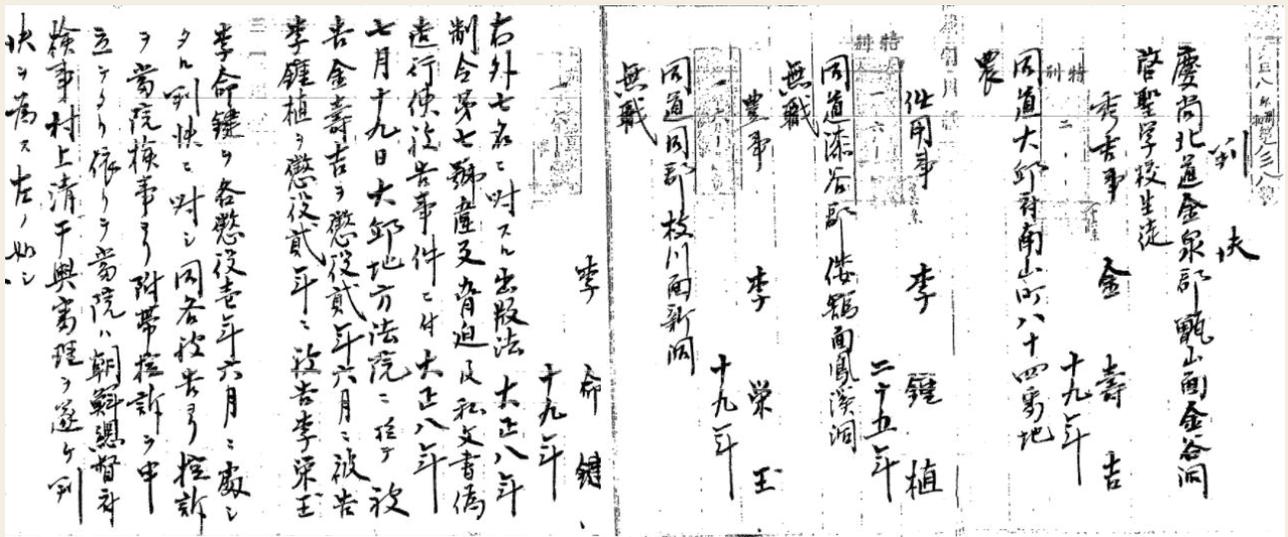
이러한 혜성단의 활동은 5월 14일 김수길이 대구부 경정 1정목 여인숙 박명옥의 방에서 대구경찰서에 체포된 후 이여성을 비롯한 동지들이 체포됨으로써 종결되었다. 김수길, 이여성 등은 1919년 10월 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형에 처해져 투옥되었다.

당시 함께 재판을 받았던 혜성단원은 다음과 같다.

- 방명원(64세) 경상북도 달성군 달서면 내당동. 예수교 장로파 장로
- 최재화(27세) 경상북도 선산군 해평면 양산동. 예수교 장로파 집사
- 이종식(25세) 경상북도 대구부 남산정. 곡물상
- 이수건(22세)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신동. 무직
- 이명건(19세)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신동. 무직. 별명 - 여성
- 이영옥(19세)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면 봉계동. 무직. 별명 - 풍
- 김수길(19세) 경상북도 김천군 증산면 금곡동. 징역4년. (계성학교 학생) 8회 졸업
- 이덕생(19세)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신동. (계성학교 학생)
- 이영식(23세)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이천동. 징역1년6월 (계성학교 학생) 8회 졸업
- 허성도(18세)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면 삼사동. 징역1년6월 (계성학교 학생) 8회 졸업
- 이기명(23세) 경상북도 의성군 북부면 상리동. 징역1년6월 (계성학교 학생) 8회 졸업
- 이종현(23세) 경상북도 대구부 남산정. 징역1년6월 (계성학교 학생)

이를 통해 혜성단의 핵심은 바로 계성학교 학생들이었다. 또한 개신교 장로 방명원과 집사 최재화가 연장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일제 경찰은 이 사건을 '최재화사건'이라 명시하기도 하였다.

혜성단은 3.1운동이 실패로 끝나려는 상황에서 비밀결사를 통해 민중계몽을 위한 선전활동을 전개하였고, 나아가 조직을 전국단위로 확대하고 만주지역 독립운동세력과의 연대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혜성단의 활동은 이후 민족운동의 방향을 제시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정 8년(1919) 형공제838호 김수길 등 판결문, 『대구복심법원』,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참고한 글

김남식, 1981, 『백은 최재화 목사의 생애』 성광문화사.

박결순, 2013, 『1910년대 비밀결사의 투쟁방략과 의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6.

신용균, 2013, 『이여성의 정치사상과 예술사론』 고려대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산을 오르며

故최연호(52회)동문을 추모하며...

산이 거기 있으므로
오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산에는 밤이 일찍 오기에
몸을 숨기려 하는 것이
더더욱 아니다.

우리가 산을 오르는 것은,
상채기가 나고 때로는 피도
눈물도 땀도 쏟으며 거기에
오르려 세월을 보내는 것을

거기서 해가 뜨기 때문이다.
거기서 달이 돋기 때문이다.

산을 오르며
우리들의 생애가 저무는 줄이야
어쩐들 모르라마는,
그래도 우리가 거기를 오늘도 오르고 있음은
내일 우리의 딸과 아들이
좀 더 쉽게
좀 더 빨리
오를 길을 만들기 위함이다.

(작가 최연호 동문은 2020년9월 우리의 곁을 떠났다)



이종민 (69회)
매일신문 선임기자

느릅나무

‘머언 산 청운사(靑雲寺) 낡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紫霞山) 봄눈 녹으면
느릅나무 속잎 피어 가는 열두 굽이를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계성학교 동문이자 청록파 시인인 박목월의 시 ‘청노루’다. 봄의 정취를 그림 그리듯이 표현한 이 시에 나오는 청운사나 자하산은 실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속세와는 구별되는 상상 속의 공간이지만 느릅나무는 우리 주변에 어렵잖게 볼 수 있는 나무로 계성고등학교의 교목(校木)이기도 하다. 대구 대신동에 있는 옛 교정이나 달성공원, 청라언덕에는 아름드리 느릅나무들이 도심의 척박한 환경에서 험난한 세월을 잘 버티고 서 있다. 동산관 앞에 홀로 서있는 느릅나무를 가리켜 “벼락을 맞고도 곳곳이 살아남은 나무”라고 소개하던 선생님의 말씀이 어렵잖다. 봄 새잎이 돋아나기 전에 볼품없는 꽃을 며칠 동안 피운 뒤 바로 부채 모양의 열매를 매달기 시작한다. 가을에 잎이 떨어지고 나도 열매는 삭막한 겨울에도 붙어 있어 운치를 더해주는 위풍당당한 나무다. 특히 우람한 줄기에서 가지를 사방으로 펼친 품새는 단정하면서도 위엄이 있고 정감이 넘친다.

‘왜 느릅나무를 교목으로 정했을까’하는 궁금증을 풀기 위해 학교에 문의해 보았으나 돌아온 대답은 “1960, 70년대 학교에 교목과 교화를 정하는 바람이 불었는데 이 때 동산관 앞에 느릅나무가 있어 이를 선정하지 않았나”는 추측뿐이고 취지나 의미는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느릅나무의 덕성을 꼽아봤다.

옛날 먹을 게 없어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하던 보릿고개 시절 온달이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구했던 게 느릅나무 속껍질이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평강왕 때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로맨스가 등장한다. 평강왕은 울보인 공주에게 “자꾸 울면 바보에게 시집보내버린다”며 달랬는데 혼기가 다가오자 말이 씨가 돼 공주는 혼자 보물 팔찌 수십 개를 차고 궁궐을 나와서 진짜로 바보 온달의 집을 찾아가 청혼했다. 눈먼 온달의 노모는 “내 아들은 가난하고 누추하니, 귀한 분이 가까이할 바가 못 됩니다. 지금 그대의 냄새를 맡으니 향기가 남다르고, 손을 만져보니 부드러움이 마치 솜과 같습니다. 반드시 귀한 사람일 텐데 누구에게 속아서 이곳에 왔습니까? 내 아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 느릅나무 껍질을 벗기러 간지 오래 되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까”며 거절했다. 공주가 온달을 찾아가자 느릅나무 껍질을 지고 오던 그는 버럭 성을 냈다. “이곳은 어린 여자가 다니는 곳이 아니니 너는 틀림없이 사람이 아니고 귀신일 것이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며 가버렸다. 공주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사립 문 밖에서 하룻밤 농성(?)을 하고난 뒤 온달 어머니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아냈다.

이야기에서 보듯이 소나무 속껍질(송기)이나 느릅나무의 속껍질은 기근을 모면할 수 있는 좋은 구황식물이다. 딱딱한 겉껍질을 벗겨내고 절구에 찼으면 느른해져 충분히 먹을 수 있다. 봄에 돋아난 어린잎을 살짝 데쳐 나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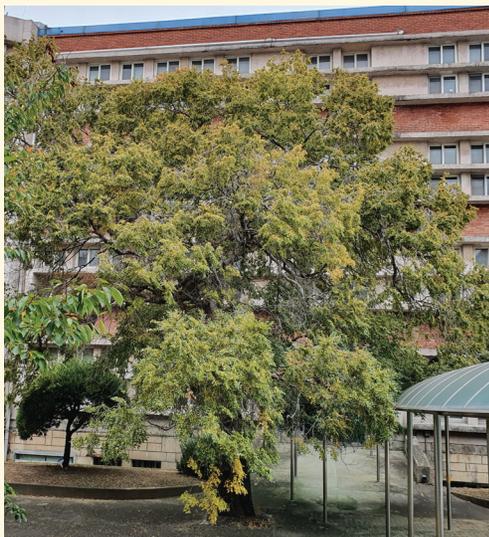
로 먹거나 버무리를 만들어 먹으며 배고픔을 달렸다고 한다. 절체절명의 굶주림을 벗어나게 해주는 구휼의 나무인 셈이다.

느릅나무의 쓰임은 신라 중기 승려 원효와 얽힌 설화에서도 알 수 있다. 과부인 요석공주를 얻기 위해 경주 남천에 있는 느릅나무로 만든 다리 즉 유교(楡橋)를 건너다 일부러 물속에 빠지는 작전을 편 원효는 공주와 사랑을 이뤄 훗날 설총을 낳았다고 삼국사기에는 전한다. 느릅나무는 물에 잘 썩지 않았으므로 개천에 다리를 놓을 때 다리 기둥으로 많이 쓰였다. 조선왕조실록의 성종 19년(1488년)에 ‘전(前) 사직(司直) 최부(崔溥)가 수차(水車)를 만들어 바쳤다.(중략) 제작하는 나무는 기계에는 삼(杉)나무를 쓰고, 장골(腸骨 뼈대)은 느릅나무(楡)를 쓰며...’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느릅나무가 수리분야에 아주 요긴하게 쓴 모양이다. 주철이 없던 옛날 유럽에서는 느릅나무 목재를 송수관이나 조선재로도 썼다고 한다. 영국 워털루 다리의 느릅나무 교각은 120년 동안 탈 없이 사용했을 정도라고 한다.

느릅나무는 한방에서 각종 약재로도 쓰인다. 새순을 갈아 먹으면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동의보감에는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배설을 도와주는 작용이 있어 대소변이 통하지 못하는 병에 주로 쓰인다’고 했다. 한때 특정 암에 좋다는 소문이 돌아 야산에 있던 느릅나무의 껍질이 벗겨지고 뿌리가 뽑히는 수난을 당하기도 했다.

목월이 읊은 열두 굽이 산속이나 마을 정자 옆이나 혹은 농촌 어디서나 느릅나무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척박한 도시환경에도 잘 견디고 쉽게 옮겨 심을 수 있다. 나무 모양을 쉽게 다듬을 수 있고 여름에는 커다란 그늘을 만들어주는 훌륭한 정자목이다. 주위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쓰임새 또한 다양하다. 널리 두루 쓰이는 느릅나무와 같은 인재를 길러내려고 이 나무를 계성고 교목을 정했으리라 믿는다.

이종민(계성고 69회) 매일신문 선임기자



계성고등학교 옛 교사 '동산관' 앞에 있는 느릅나무..



달성공원에 있는 참느릅나무.



조국래 (74회)

〈그녀...사랑하는 나의 할머니〉

내 고향 청송은 워낙 오지라 옛날에는 유배지의 으뜸이었고 지금은 징역 수십년이 넘는 범털들만이 갈 수 있는 중범죄자 교도소가 있다. 그나마 주왕산 국립공원이 있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이런 곳이 무에 그리도 좋았을까!

새 학기가 돌아오는 봄이면 늘 생각나는 그녀가 있다.

어릴 적에 청송이 너무 좋아 입학 적령기가 넘도록 나는 그곳에 있었다. 어떡하든 힘으로라도 나를 대구로 데려가려는 할아버지의 시도는 결국 나의 출행량으로 실패하게 되었고 쫓아오다 달려오시다가 작은 냇가를 넘은 내게 할아버지께서는 망설임없이 짱돌을 던지시며 화풀이를 하셨다. 하지만 그 돌에 맞아 대가리가 깨지더라도 고향을 떠나지 않겠다는 내 결심을 결코 꺾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결국 빈 수박껍데기를 들고 그것만 다 먹으면 다시 고향에 돌아올 수 있다는 할머니의 달콤한 꼬임에 속아서 나는 청송을 떠나게 되었다.

비포장 완행버스 뒤로 치맛단을 끌어올리며 눈물을 닦던 할머니. 손자가 무엇이관대 그렇게도 슬퍼하셨을까!

불심이 깊어 평생 꽃조차 꺾지 않던 착한 심성의 할머니께서는 지나가는 구렁이에게도 허리를 구부리고 합장하며 뱀꼬리가 사라질 때까지 불경을 기도하듯이 되뇌이셨다.

평생 기차 한 번, 고속버스 한 번 못 타보셨던 할머니는 장조카에게 쓰는 손자가 대필한 유언 같은 편지 속에 그 속 내를 보이셨다.

"교야, 버스도 타고 싶고, 기차도 한번 타고 싶구나!"라고.

이제는 하늘 나라로 가서서 비록 그 모습은 볼 수 없게 되었지만, 나는 시가, 문학이 죽은 이에게도 선물할 수 있는 것을 어느 해 구정 하루 전 날에 깨닫게 되었고, 그 첫걸음으로 이 시를 짓게 되었다.

그렇게 〈길〉이라는 시로 등단 시인이 되었고 이 시를 할머니 영전에 바치며 그 태산 같은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를 본 어떤 이는 그 년이 누구냐고 외치듯이 물어보기도 하지만 나는 할머니가 불경을 외듯이 이 시를 되뇌일 때마다 비포장 도로 위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치맛단을 끌어올려 손자와의 이별을 비통해 하시던 나의 할머니를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그 길 위에 선, 사랑하는 나의 할머니.

〈뒷편에 이어서...〉

길

길 위에 서면
그녀가 있다

뽀얀 먼지 가득히
눈물 뿌리는 그녀가 있다

하얀 적삼
검은 치마
국화꽃 당신

사연 모르는 꾀꼬리는
떠나라 떠나라 울어대고

갈 길 바쁜 완행버스는
무정한 길 내지른다

Road (영역)

Whenever I am standing on the road
she always there

Her eyes were swimming
with tears of sadness

White blouse
Black skirt
Lilied you

Nightingale who don't know my story
goodbye goodbye crying again

Bus in a hurry
let leave heartlessly

※This story is based on my grandmother. It can be showing a visible situation to split with her when I was young.

조국래 (74회)



KEISUNG Alumni VOL 67

동문 인터뷰

화제의 계성인

- 고동현 (57회)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 권재일 (59회) 한글학회 회장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김사열 (63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장관급)
- 노태약 (68회) 대법관
- 김재엽 (70회) 동서울대학교 경호스포츠전공 교수

아담스관 전경
(1908년 3월30일 완공)

“마라톤은 도전 그 자체, 80세까지 80번 풀코스 완주를 위해 매일 달립니다”

흔히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는 말을 많이 한다. 빨리 달려서도 너무 뒤통자도 힘든 운동으로 페이스를 잘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묵묵히 달려 목표점에 골인해야 하는 운동인 마라톤을 고동현(57회)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은 50세에 접어들어 시작했다. 마라톤이 이제 삶이 되어버린 고 이사장의 마라톤 인생 이야기를 들어봤다.

- 대담자 : 총동창회 사무총장 오달현(69회)



고 동 현 (57회)

▲ 2019 도쿄마라톤 대회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Q. 마라톤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무엇인가요

50대에 들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삶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되었는데, 일에 빠져 건강에 신경을 너무 못쓰고 살아왔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 때 한 운동모임에서 같이 활동하던 김형구 대구마라톤클럽 전 회장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혈압, 복부비만 등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죠. 양친 모두 일찍 돌아가신터라 더욱 건강에 신경을 써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Q. 바로 운동을 시작하신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운동을 하셨나요

결심을 다지기 위해 2001년 2월 16일 한 모임에서 3년 안에 보스턴마라톤대회 출전 자격증을 따서 그다음 해에 출전하겠다고 공표를 해버렸죠. 처음에는 서구 구민운동장을 세 바퀴 도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이 없었지만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운동장 100바퀴를 거뜬히 뛸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혹독하게 2년을 연습하고 보스턴대회 출전 자격증을 따냈습니다.



▲ 6대 메이저 마라톤 완주 기념

출전 자격증은 국내 메이저대회에서 3시간 35분 안에 들어와야 받을 수 있는데 2년 만에 동아 마라톤에서 3시간 33분 기록으로 완주해 자격증을 땀고 마라톤 입문 3년 만에 보스턴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죠.

늦은 나이에 시작한 마라톤이지만 저는 “무슨 일을 하든 열정을 쏟아 붓자” 라는 생각으로 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Q. 마라톤을 시작하며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것은 건강이죠. 시작 당시 168cm, 몸무게 77kg, 허리 37인치였는데 지금은 몸무게 64kg, 허리 33인치로 줄었습니다. 성인병은 완전히 사라졌고 근육도 탄탄해졌죠. 마라톤을 통해 목표한 바를 이루면 성취감을 넘어 모든 일에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까지 생기게 됩니다. 몸과 정신 건강에 이만한 운동이 없을 겁니다.

Q. 모교에 마라톤 동호회 창단을 주도하는 등의 관련 활동을 활발히 하셨는데요

마라톤에 대한 열정으로 2005년 대구계성고등학교 마라톤 동호회 창단을 주도하게 되었죠. 동문들이 잘 따라와 줘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2001년 6월 “대구달리네부부 마라톤 동호회”를 만들었는데요. “달리는 가족”이란 의미를 담아 이름을 지었고 처음에는 대학 동기 등 지인 7쌍(14명)이 모여 창단했는데 지금은 17쌍으로 늘어날 만큼 호응이 좋고 전국 최고령 부부 마라톤 동호회로 발전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합동훈련을 하는 것은 물론 1박 2일 하계수련회, 봄가을 국내 대회 참가, 2년에 한 번 해외 대회 참가 등을 통해 건강과 함께 형제애 같은 우정까지 다져오고 있습니다.



▲ 런던마라톤대회

Q. 부상은 없었나요

아마추어 마라토너에게는 꿈의 기록인 ‘서브 스리’에 도전 하면서 부상을 당했는데요, ‘서브 스리’는 풀코스를 3시간 안에 뛰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달성하면 흔히 “마라톤 명인”이라고 부르기도 할 만큼 쉽지 않습니다. 2005년 전주마라톤대회에서 ‘서브 스리’를 달성했는데요. 그 과정이 많이 힘들었죠. 아침에 삶은 계란 3개, 점심은 삶은 닭 반 마리, 저녁은 소고기 샤브샤브 150g과 소금기 없는 채소를 먹으면서 체중 조절도 함께 했죠. 덕분에 목표한 바는 얻었지만 그때 후유증으로 아킬레스건이 부분 파열됐어요.

3번 수술하고 2년을 쉴 정도로 힘들었는데, 마라톤을 함께 하고 있는 많은 이들의 격려와 편지로 큰 용기를 얻고 재활에도 성공해 2008년부터 다시 뛰기 시작했죠. 지금도 허리가 아픈데 대학 동기(도수회)가 많은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Q. 아마추어 마라토너의 꿈인 그랜드슬램도 달성하셨나요

2004년 보스턴대회에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세계 메이저 마라톤대회인 베를린(2010), 시카고(2011), 뉴욕(2014), 런던대회(2015)를 완주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도쿄대회까지 완주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고요. 국내에서 50번째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69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목표를 이뤄 더 기뻐했습니다. 인생에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생각과 정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Q. 마라톤 인생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내년이면 마라톤을 한 지 20년이 됩니다. 저는 좌우명이 '달리면 정신이 맑아진다' 였는데요 최근 좌우명을 'Age Runner'로 바꿨습니다. 골프의 'Age Shooter(라운드를 자신의 나이 또는 그 이하의 타수로 치는 사람)'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자기 나이만큼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최종 목표는 80세에 80번 풀코스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Q. 지난해 3월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제선임되셨는데요

2013년부터 3년간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을 맡아왔는데 지난해 다시 이사장으로 선임되어서 기쁘기도 하고 책임감이 더욱 무겁습니다. 이사장 재선임은 50년 서대구산업단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2천 400

여 입주 업체 대표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처음 이사장을 맡았을 때 산업단지 재생사업, 서대구역사유치사업 등을 잘 추진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잘 완료하는 의미로 알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Q. 모교 후배들과 동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고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일들을 잘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배들도 이 시기를 잘 이겨낸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계성 동문들은 끈끈하고 돈독한 우애를 계속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자유롭게 만날 수는 없어도 전화로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어려운 동문들을 배려하고 챙겨주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마라톤처럼 묵묵하게 자신의 페이스를 지켜나간다면, 언젠가 목표점에 환하게 웃으며 골~인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기대해봅시다.



▲ 6대 메이저 마라톤 대회 완주 기념 행사

우리말 우리글, 그리고 한글학회

우리의 생각을 이어주고 문화를 이끌어 준 뿌리가 바로 우리말이다. 이러한 우리말, 우리글을 가꾸고 지키는 중심에 한글학회가 있다. 한글학회 회장인 권재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만나 아름다운 우리말과 한글에 대해 들어봤다.



권재일 (59회)

한글학회 회장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Q. 한글학회의 창립 배경은

한글학회는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08년에 창립된 '국어연구학회'에 닿습니다. 이해 8월 31일 주시경 선생은 김정진 선생을 비롯하여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국어연구학회를 창립하였습니다. 기울어가는 국운을 보면서, 겨레 말글의 힘을 믿는 이들을 결집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 때문이었죠. 이 무렵인 1911년에 울산 출신 최현배 선생과 동래 출신 김두봉 선생은 함께 국어연구학회가 차린 강습소에서 공부하여 주시경 선생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1914년 주시경 선생이 갑자기 돌아가신 뒤 김두봉 선생은 국어 연구와 교육에 힘쓰다가 1919년 중국으로 망명했고, 최현배 선생은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부임하여 국어 연구에 힘썼습니다.

국어연구학회는 그 이후 조직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1921년에 '조선어연구회'로 개편하고, 1931년에 '조선어학회'로, 1949년에 '한글학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하는 일에는 시대에 따라 그 범위와 규모가 달랐지만,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말과 글을 연구하고 교육·보급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그에 따른 실천 운동을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주시경 선생의 국어 연구,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의 탄압에 목숨 걸고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켜 온 한글학회 선열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문화와 번영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글학회는 평범한 학술단체가 아니라, 우리 겨레문화를 지켜온,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나갈, 빛나는 큰 별이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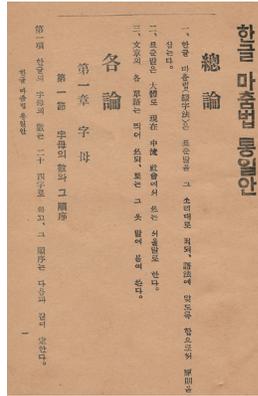
Q. '조선어연구회'는 어떤 활동을 주로 했습니까

국어연구학회는 그 이후 조직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1921년에 '조선어연구회'로 개편하고, 1931년에 '조선어학회'로, 1949년에 '한글학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하는 일에는 시대에 따라 그 범위와 규모가 달랐지만,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말과 글을 연구하고 교육·보급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그에 따른 실천 운동을 끊임없이 해 왔죠.

일제강점기의 조선어학회는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 나라와 민족을 되찾고 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길은 오로지 우리 말글을 지키는 데 있다는 뜻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한글날을 만들고(1926년), 조선어사전편찬회를 조직하여 우리말근사전을 편찬하고(1929년), 이를 위해 한글맞춤법통일안을 제정하고, 표준말을 사정하고, 외래어표기법통일

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오늘날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맞춤법, 우리가 말하고 있는 표준말은 물론, 큰사전은 한글학회의 뿌리인 조선어학회 선열들이 만들어 물려준 것이죠. 이렇듯 한글학회는 지금까지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지켜 온 겨레의 학회입니다.



▲ 한글맞춤법통일안

Q. ‘조선어학회 수난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조선에 대한 식민 통치를 더욱 강화하면서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하였다. 조선인의 이름과 성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하고 조선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 조선어 교육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암담한 상황에서 조선어학회 선열들은 핍박과 감시를 받아가며 우리 말글을 지키고 가꾸기 위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조선말큰사전” 편찬에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1942년, 조선어학회 학자와 후원자를 체포되는 수난을 당하였으니, 이를 ‘조선어학회 수난사건’이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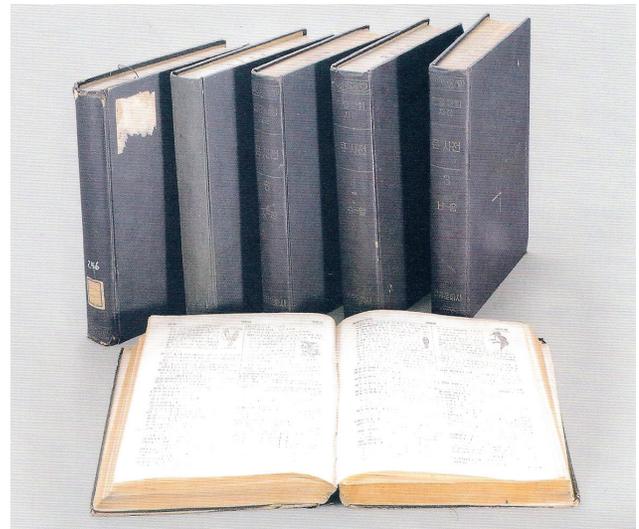
일본 경찰이 1942년 10월 사전 편찬을 주도했다는 죄목으로 서른세 분의 조선어학회 선열들을 흥원경찰서와 함흥형무소에 가두고 모질게 고문해 이운재 선생(계성학교 3회 졸업)과 한징 선생 두 선열은 감옥에서 돌아가시고 다른 분들은 광복 전후에 반죽음 상태로 풀려난 사건입니다. 이는 일본 식민 통치가 자행한 가장 잔혹한 민족 말살 책동이며,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슬프면서도 그러나 가장 빛나는 독립투쟁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은, 단순히 국어학자들이 우리 말글을 지키려다 일제의 탄압을 받은 사건이 아닌, 민족혼을 일깨우고 자주독립을 쟁취하려는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에 연루돼 투옥된 분 가운데는 국어학자보다 민족주의자, 독립운동가가 더 많은 데서도 그 성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Q. 광복 이후 한글 학회는 어떤 활동을 펼쳤나요

광복 이후에도 한글학회는 우리말과 우리글 한글을 지

키고 가꾸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는데요. 우리말 사전 편찬 활동을 계속해 오면서 연구와 실천 운동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국어학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학술지 “한글”을 펴내면서 학문 연구에 앞장섰고 국민에게 우리 말글의 가치를 계몽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글자 생활의 평등을 위해 한글전용 정책을 펼치며 낱말이 넘쳐나는 외국어를 슈아내어 우리말을 쉽고 정확하고 품격 있게 쓰도록 하는 실천 운동도 펼쳤습니다. 또한 최근 몇십 년 동안에는 외국인을 위한 한



▲ 한글학회큰사전

국어 교육을 위해서, 국외 교육자를 초청하여 연수회를 개최하고, 한국어 교재를 편찬하여 보급하고, 또한 한국어 평가시험을 시행하기도 하면서 한국어 교육 발전을 위한 활동에도 힘썼습니다.

Q. 한글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한글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의 싹을 틔워 준 곳이 바로 계성고등학교입니다. 계성의 훌륭한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바로 오늘의 저를 이끌었죠. 꼼꼼하게 문학 이론을 일깨워 주신 윤근필 선생님, 자유로운 영혼으로 문학 정신을 깨우쳐 주신 김성도 선생님을 잊을 수 없다. 저에게 현대국어 문법을 가르쳐 주신 분은 김학섭 선생님이신데 우리말 문법 체계에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학

섭 선생님의 시집 “노귀재”에 실린 ‘호박이 넝쿨채로’라는 시의 일부이다.

“담 밑을 파서 심을 적에 / 뉘 알리 / 어느게 / 튼실한지
나의 이 저녁 / 책상머리에서 눈이 커져라
비로소 넝쿨채 굴러든 호박 / 30년만에 맺은 열매를 보며
상아탑 속에서 / 또 한 번 빅벤이 울리누나.”

한글학회를 창립한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한글학회 회장으로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우리 말글의 가치에 너무 무관심하여 우리의 말글이 망가뜨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세계화 추세에 따라 일상생활과 교육 현장에서 국어가 경시되고 외국어가 널리 퍼져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글학회가 ‘외국말 마구 쓰기 이제 그만!’이라는 운동을 펼치는 것도 이를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현실을 극복하는 방안은 국민들이 국어의 참된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국어를 지켜 가꾸려는 의지를 가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말 우리글을 지키고 가꾸어 온,



▲ 한글학회앞권재일



“진리와 정의는 앞을 넘어 실행에 옮길 때 빛을 받습니다”

계성학교 재학 시절 “진리와 정의는 단지 앞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는故 박훈주 목사님의 말씀이 큰 감명을 받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한다는 김사열(63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게 근황과 학창 시절 아름다운 추억이야기를 들어봤다.

- 대담자 : 총동창회 사무총장 오달현(69회)



김 사 열 (63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장관급)

Q. 만나서 반갑습니다. 동문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경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생화학」, 「유전체학」, 「생명과학」, 「시사생명과학」 등을 강의하며, ‘식물과 미생물 간 상호작용(Plant & Microbe Interactions)’이라는 주제로 연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3월초부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교수일과 함께 겸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적으로 Nature 390:249-256 (1997) 포함 논문 104편, 저서 31권, 특허 13건 등을 발표 했습니다.

Q.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곳인가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관(위원장은 장관급)으로서 80여명의 직원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도권 집중(2019년 말 인구 50% 이상)은 사회적 전

염병이며, 우리가 개발한 유일한 백신은 ‘국가균형발전정책’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 간 불균형, 저성장·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부동산문제 등과 같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이자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핵심가치라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의 목표 아래,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결국 지역에 기업이 정착하도록 유도하여 자율적인 지역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학창시절 추억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계성고는 당시 다른 공립학교 수준과 대비하여 선진적 교육시설(어학실, 방송실, 미술실, 화장실, 교실, 교사 개인연구실 등)을 갖추고 있었으며, 동시에 매우 우수한 교

사진(상당수 선생님이 나중에 대학교수로 임용됨)의 지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독교계 미션스쿨로서 신앙을 갖게 되었고, 자유로운 품성과 세상을 섬기는 자세를 덤으로 선물 받을 수 있어서 더욱 좋았죠. <성지>라는 하이 와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훌륭한 선배들과의 교제를 하게 된 것은 또 하나의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고3때는 건강이 좋지 못하여 거의 휴학하다시피 보냈던 기억이 있어서, 인생에서 건강의 중요함을 몸소 실감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Q. 잊지 못할 은사님이 계신가요

계성고는 미션스쿨로서, 제가 신앙심을 갖고 기독교를 평생의 종교로 이끌어준 학교로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차례씩 채플시간과 성경공부가 있었는데, 그 시간을 통하여 당시 목사님 중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훈주 목사님이 잊지 못할 은사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재학 중, 그분은 설교와 성경공부 시간에 상당히 인상에 남는 이야기를 해 주셨지요. 제가 졸업한 후에 박 목사님께서는 계성고를 떠나셨는데, 시대가 어려운 시절에 사회 참여 활동을 실행하시는 모습에 대하여 큰 감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진리와 정의는 단지 앞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신 분이죠.

Q.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1990년 덴마크 유학시절부터 꾸준히 배드민턴을 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북대학교직원배드민턴클럽 <하이클리어>에서 일주일에 2차례 2시간씩 배드민턴을 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서울 도심의 공원, 주말에는 집 주변 산속으로 산행을 하면서 매일 10,000보 이상을 걷습니다. 동시에, 하루 세끼 소량이라도 반드시 식사를 합니다. 직접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Q.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성고 교훈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잠언 1:7)라는 가르침은 지식 중의 가장 으뜸이어서 수용하는 후배님께 삶속 축하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故 박훈주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진리와 정의는 앞을 넘어 실행함으로써 비로소 본질에 가닿게 됨에 대하여 함께 공감합니다. 아멘!

<약력>

계성고등학교(63회)

1976-1980 경북대 생물교육과(이학사)

1990-1993 (덴마크) 코펜하겐대학교 분자생물학연구소(Ph.D.)

1993-1996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Research Associate

2000-현재 경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교수

2005-2009 대구민예총 회장

2008-2012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문화원 원장

2016-2020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대구경북지회 회장

2004-2005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

2007-2009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표

2020-현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2003-현재 (대구) 한길교회 장로

■ 수상

<최우수논문상> (2007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덕산양한철학술상> (2010년,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우수논문상> (KJMB, 2012년,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이달의 논문상> (JMB, 2013년 11월,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좋은 법관이기 이전에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2020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된 노태약(68회) 대법관은 6년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어느 법관의 심정이라는 글귀처럼 “좋은 법관이기 이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친절하고 성실한 인간이 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법관의 역할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더 나은 재판, 좋은 재판을 하겠다는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면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대법관
노 태 약 (68회)

Q.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3월 4일자로 대법관으로 임명된 노태약입니다. 1962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아주 어릴 적 대구로 이사 와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 1978년 모교에 입학, 1981년 제68회로 졸업하였습니다. 1984년 한양대학교 법학과 재학 중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년간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쳐 3년간 육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다음, 1990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30년 넘게 법관으로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사법연수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특허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 2020년 3월 4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Q. 학창시절 추억을 나눠주신다면

서문시장 옆에 있었던 옛날 학교터의 본관으로 올라가는 50계단과 우리나라 최초로 영남 지역에 세워졌다는 2층 건물과 담장이 넝쿨로 덮인 고색창연한 본관 건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학교 교훈은 늘 우리 가슴 속에 있었던 계성의 자랑이었습니다. 참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주셨던 선생님들, 그때 같이 공부하며 학창생활을 보낸 동창 친구들 모두 소중한 추억과 깊은 감사의 대상입니다.

Q. 잊지 못할 은사님과는 계신가요? 그 이유는 무엇 인가요

여러 선생님이 계시지만 아무래도 3학년 대학 본고사가 폐지되고 과외가 없어지면서,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으로

서울에서 입주과외를 생각하고 있던 제가 과연 대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을 때 여러 가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담임 전병직 선생님이 먼저 생각납니다.

고 3때 가정방문을 하신 후 학교에 의뢰가 온 여러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셨던 기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부터 미술시간에 제가 그린 그림을 보시고 계속하여 미술반 가입을 강요(?)하셨던 박종갑 선생님, 고 3때 화학과목을 가르치신 윤위한 선생님, 옆 반의 담임선생님이시면서 국어과목을 담당하신 박유현 선생님 등이 생각납니다. 윤 선생님과 박 선생님 두 분과는 지금도 가끔씩 연락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Q. 대법원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됩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의 민사·형사·행정·도산·특허 및 가사사건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과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을 중심으로 심판하고, 특별한 경우 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비상상고 사건도 재판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에 관해서 전속관할권을 가집니다. 명령·규칙·처분 또는 행정기관의 조치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대법원에 최종적인 심사권한이 있습니다.

Q. 대법관으로서의 소신을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지난 3월 대법관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밝힌 것입니다. 사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절차를 통하여 찾아야 합니다.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며,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에 근거한, 예측가능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판결은 오랫동안 끌고 온 소송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 최종 결론 못지않게 그에 이르는 절차 또한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분쟁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린 결론에 대하여, 패소한 당사자도 자신은 비록 달리 생각하지만 재판부의 결론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불가능한 이상론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정직한 목소리를 내놓아야 합니다.

독일의 존경받는 법철학자 라트브루흐는 “법이란 이상적인 가치에 봉사하는 의미를 가진 현실”이라고 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린 판결이 당사자 간 분쟁에 대한 결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판결을 통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확인하는 한편, 사회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시대의 요청 또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의 법학자 셀수스는 “법이론 선과 공정, 즉 옳음과 형평의 예술”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법관으로 알려진 김홍섭 판사님은 어느 법관의 심정이라는 글에서, “좋은 법관이기 이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친절하고 성실한 인간이 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6년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새기고 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Q. 법관으로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학창생활을 지내는 동안 그 나이 또래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정도의 고민은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와 사회의 관계, 역할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색과 그 해결방안이 있는지를 찾는 정도의 시간을 가진 적은 있습니다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법관으로 재직할 이래 지금까지 그 많은 사건을 처리해오면서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나하나의 사건을 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나의 판단이 법과 양심에 맞는지, 다른 의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였는지,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추구하는 정의를 지켜낼 용기가 있는지에 대해

자문해보고, 이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하여 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믿음과 다짐을 온전히 실천하기에는 저의 능력이 부족하였던 것도 분명합니다. 앞으로 대법관으로서 임기를 마칠 때까지 늘 가슴에 담아두고 실천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법관 재직 중에는 국가의 도움을 받아 미국 조지타운대학 로스쿨로 유학하여 LL.M. 학위를 취득하고,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법관으로서 안목과 지평을 넓히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Q.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특별히 지속적으로 해온 스포츠나 취미활동은 없습니다. 다만 일주일에 3, 4일 정도 아침 식사하기 전 요가매트를 깔고 30여분 정도 스트레칭 운동과 약간의 근력운동을 하려고 하며, 저녁에는 식사 후 처와 함께 집 주변이나

한강 변을 한 시간 정도 산책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가끔 동료 법관들과 서울 근교 산으로 등산을 하고, 가능하다면 짧은 거리라도 걸어 다니려고 하는 정도입니다.

Q. 마지막으로 모교 후배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제가 인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저는 아직도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도 어릴 때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무한한 사랑과 인내를 생각하고, 학창시절을 지내오면서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배려와 신뢰, 끊임없이 기회와 은혜를 준 우리 사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타난 현상에 대하여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도 고민해보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사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법조인으로서 미래를 생각한다면 다른 기회에 또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학력

- 1985. 한양대학교 법학과
- 1996. 미국 Georgetown Univ. 법과대학원 LL.M.
- 2011.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생명윤리(생명문화)학 석사

■ 법조경력

- 2020. 3. 대법관
- 2017. 2. 서울북부지방법원장
- 2014. 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2. 8.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 2009. 2. 특허법원 부장판사
- 2006. 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3. 2. 사법연수원 교수
- 2000. 2.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0.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임관

■ 주요경력

- 2020. 5.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
- 2016. 9.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 방문학자(Visiting Scholar), 고려대 겸임교수
- 2016. 4.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부회장
- 2014. 3. 대법원 국제거래법 연구회장
- 2013. 3. 한국국제사법학회 부회장
- 2012. 11.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 2012. 9.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장
- 2011. 3. 대법원 사법정보화연구회장
- 2006. 2. - 2008. 2. 대법원 국제규범위원회 위원
- 2004. 9. - 2009. 2.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심의위원

“계란으로 바위 쳐서 계란 자국이라도 남기고 싶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국제대회 통산 9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유도계의 스타 김재업 교수(70회)는 과거 한국 유도의 파벌 논란을 폭로했다가 결국 유도계에서 퇴출되어 현재는 동서울대학 경호스포츠 전공 교수로 17년째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잊혀진 스타이지만, 계성학교에서는 잊혀져서는 안 될 동문 김재업 교수를 만나봤다.

- 대담자 : 총동창회 사무총장 오달현(69회)



김재업 (70회)
동서울대학교
경호스포츠전공 교수

Q.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근황을 말씀해주시요.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거의 40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먼 길까지 잊지 않고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는 동서울대학에서 경호스포츠 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뭉쳐야 찬다’라는 예능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축구하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나름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Q. 대학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요

17년째 동서울대학교에서 경호스포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레저학과에서 경호안전학과, 경호스포츠학과로 변경되었고요. 제가 신선했던 학과라 그런지 더욱 애착이 갑니다. 취업은 주로 사설 업체 경호경찰이나 군인으로 취업하고 있는데요, 취업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좋

은 대학, 좋은 학과를 나와도 취업이 안 돼서 이우성인데 우리 학과는 60% 정도의 취업률을 자랑합니다.

Q. 학창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유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초등학교 시절 유도 도장을 놀러갔는데 낙법을 보고 반하면서 4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잘 하지 못했어요. 유도를 안 하겠다고 하니 아버지한테 혼이 났고 깡패를 하겠다고 하는 말까지 했었죠. 그런 저를 계성고등학교 시절 한광훈(현 계성중학교 유도감독)이라는 친구가 잡아주었습니다. 이 친구는 적수가 없을 정도로 유도를 잘했어요. 실력도 굉장히 뛰어났고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유도 실력이 엉망이었는데, 이 친구 덕분에 2학년 때부터 기숙사 생활하면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1982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선발되었고, 88올림픽 뿐만 아니라 국제대회에서도 유도로 승승장구 하게 되었죠.



Q. 유도계의 파벌 논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저는 성격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을 해야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하는 말을 많이 했었죠. 그래도 잘못된 것은 누군가 말해야 하고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도계에서 퇴출되었지만 미련은 없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쳐도 계란자국은 남는 법이니까요.

Q. 학창 시절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사건이나 은사님은 있습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 밖에 몰라서 사실 특별한 추억이 없어요. 그 흔한 미팅도 못해봤고요. 그래도 기억나는 은사님은 마동철 유도 감독님과 이여진 교장 선생님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이여진 교장 선생님은 경기가 있으면 오셔서 응원하러 오셨죠.

Q. 사업하시면서 어려운 일도 많이 겪으셨고 극단적인 선택도 하셨다고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주위 사람들 말만 듣고 투자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 잘 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돈, 명예, 위축된 제 자신이 싫어서 사람들도 잘 만나지 못하니까 극단적인 선택도 했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많이 해서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학교수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 보람 있고 좋습니다.

Q. 어린 시절 꿈도 국가대표 유도선수였습니까

어렸을때부터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선수층에 있었을 때도 책을 굉장히 많이 봤죠. 체육 하는 사람들 공부 못 한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책도 많이 읽고 박사학위도 취득하고 나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꿈을 이룬 거죠.

Q. 모교에서 유도부가 있는데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학교 다닌 시절에 유도부가 꽤 인기 있었습니다. 1980년도 전국체전에서 펼쳐지는 유도경기는 모두 계성 고등학교가 제패를 했었으니까요. 유도에서는 따라올 학교가 없었을 정도로 모교가 유명하고 잘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침체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선수층이 얇아서 이기도 하지만 예전보다 유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었기 때문일겁니다. 이럴때일수록 학교나 동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잘 했던 종목이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에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관심을 갖고 모교 유도부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이전의 명성을 이어 갈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Q. 모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계성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교 삼각 마크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끔 재경동창회에서 하는 행사도 참여하고 총동창회 체육대회도 참석하면서 동문들과의 끈끈한 우애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운동 밖에 모르던 학창 시절이지만 어디 가서든, 어떤 자리든지 계성고등학교는 저의 가장 아름다운 모교입니다. 대학은 자랑하지 않아도 계성은 저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후배들에게도 아름다운 모교에서 멋진 추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학창시절을 보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Q.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저의 계획은 소박합니다. 지나온 세월동안 많은 일이 있어서인지 돈도, 명예도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저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와서 보니 감사한 일이 많더라고요. 방송을 하는 것도,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칠 수 있는 것도 모두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도 착실하고 건강하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며 살고 싶습니다.

■ 이력

동서울대학교 경호스포츠 전공 교수 / 전 국가대표 코치, 유도선수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호안전학 박사
대통령훈장 청룡상 수상
19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 유도 60kg 금메달
1987년 세계유도선수권 대회 우승
1986년도 서울 아시안게임 유도 금메달
계성고등학교 졸업(70회)



포스트 코로나



이수남 (50회)

우리의 삶에 준 고통은 차치하고서라도 전 지구인을 공포로 몰아넣은 네놈 이름은 또 뭘이더냐. 코로나19, COVID.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또 코로나블루, 블루, 그런데 네놈 꼬리에 블루가 왜 붙어 있지? 최초로 우한 폐렴이란 딱지가 붙었지만 그래 네놈은 박쥐란 그 짐승과도 인연이 있더구나. 이름 그런 놈 치고 좋은 놈 보지 못했지만 그래, 네놈 상 다시 한 번 살펴보자.

구형球形으로 생긴 네놈 얼굴, 울긋불긋 웬 돌기가 그리 많은지 징그럽기 짝이 없다. 네놈 값으려고 하나하나 숫자 헤기까지 했으나 그만두고 말았지만 애초 네놈은 그리 악한 놈은 아니었더구나. 그 구형 얼굴을 떠올리면 히딩크 월드컵이 생각나고 네놈이 극악무도하게 설쳐댈 무렵에 그나마 국민에게 위로와 용기를 준 류현진 손끝의 야구볼이, 손흥민 발끝의 축구볼이 다 네놈처럼 구형인데 어찌자고 네놈은 그런 짓이냐. 돌연변이 같은 놈, 이름값도 못하는 놈. 담백질 울퉁불퉁 튀어나온 꼴을 보고 이름 하나 아름답다, 코로나corona가 네놈과 어울리기는 하느냐. 왕관이 무엇이냐, 왕관이.

하기 싫은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 네놈 보고 ‘국민감염병’이라고 하더구나. 왜 네놈 앞에 ‘국민’자가 붙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지만 생존경쟁에 탈락, 공포에 내몰린, 이리 풀리고 저리 풀리는 우리의 20대 미래세대를 ‘코로나세대’라고 하더구나. 386, 486, 586 무슨무슨 86세대가 있다던데 네놈이 우리 세대까지 구분하려 드는구나. 뿐아니라 경제문란, 국가부채문제로 네놈이 나라의 곳간까지 흔드는, 못하는 짓이 없구나.

코로나 네놈이 두렵기는 한 것이 인간세포를 뚫고 증식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러나 머지않아 항체가 네놈 씨를 말리고 말 것인데, 그럼에도 길거리 은행 알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산비탈 밤 숲에서 암갈색 윤기 나는 밤뜰이 소리 내며 툭툭 떨어지고 있는데도 사라질 줄 모르고 기승을 부리고 있구나.

네놈 위력 알 만하다. 올해 노벨평화상은 WFP가 받았는데 네놈 행패로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고 그렇게 기아와 맞서 싸우는 유엔세계식량계획이 영광을 안게 되었지. 굶주림의 문제를 전쟁의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대처했다는 뜻이야. 네놈을 쓸어버릴 백신을 찾아낼 때까지의 최고 백신은 바로 식량 문제가 아니겠어? 또 하나 유전자 가위로 네놈을 5분 만에 삭독삭독 절단하는 기술로 노벨화학상을 받은 두 명의 여자 교수도 있어.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쌓은 것은 다 네놈과 이런저런 인연으로 된 것이야.

한 가지, 네놈 공포 하나 있다. 전 국민을 하나로 묶은 것은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마스크를 쓰게 한 것이야. 원래 복면이란 낮이든 밤이든 점잖은 양반은 하지 않는 일 아니던가. 그런데 지하철 실버패스카드 체크할 때 마스크, 버스 승강장에 오를 때마다 거드는 마스크 한마디.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 옹커니 얼마 전, 서울의 넓은 거리를 달리는 차량 전면, 마치 거대한 빌딩을 천 하나로 감싸는 설치미술처럼 웬 천막 같은 마스크로 덮었고, 말없는 제주 돌하르방 얼굴까지 숨 못 쉬게 마스크를 해 댄더구나. 이웃나라 일본에선 네놈 때문에 시달린 시민을 위로한다고 운행 중인 지하철 그 좁은 통로의 승객들 사이에서 옷통 벗은 레슬러가 화끈한 한판을 붙였더구나. 마스크를 쓴 승객들이 그 장면을 보고 사진 찍는다며 난리였지만 지하철에서 레슬링 시합이 다 뭐냐, 레슬링이. 그것 모

두가 다 네놈 탓 아니냐. 이제 마스크는 국민필수품이 되었구나.

네놈 행패가 속지지 않자 '네놈 극복'을 염원하는 염주를 든 스님들이 모자와 마스크 차림을 하고 '국난극복 자비 순례단'을 결성, 이곳 동화사를 출발, 서울 봉은사까지의 20일간 여정으로 출발했어. 아마 지금쯤 중부지방 어디를 지나시겠지. 이런 마음은 불교만이 아니라 전국의 교회나 성당에서도 마찬가지로의 기원을 하고 있을 것이야.

네놈 때문에 문명의 발달을 촉진한 것도 있어. 자동판매기가 그것인데 취급 물품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진보했다는 거지. 알아 볼까. 1977년 일본에서 처음 개발되고 우리나라는 1980년부터 국내 생산이 가능했던 그 자판기, 종전의 커피를 비롯한 음료수가 위주인데 이제는 한우 등심, 돼지 삼겹살 등도 뽑아먹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모두 집콕, 방콕, 혼술, 혼밥이 가져온 현상이 아니겠어. 결국 네놈의 행패로 운동량이 적은 국민들이 돌연 미반 사태까지 불러오게 되었어. 주말이면 바깥 출입 금지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 사교육에도 영향을 미쳤어. 원어민 교사 귀국하고 유학생들 본국으로 돌아오자 과외시장 대혼란 벌어졌네. 강남이란 좋은 학군 우선 선택 되는 판에 그것도 달라졌 다. 이제는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강원도가 최상의 선택지가 되고 말았다네.

우리의 일상을 네놈이 바꿔 놓은 직종도 있어. 바로 배송센터가 그것이야. 김치, 된장, 우리 먹거리가 어느 틈에 메콤달콤한 맛으로 변하고 또 그것을 포장하여 배달하는 분야가 발달하면서 산업지형이 바뀌게 된 것이야. 덩달아 온라인 쪽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음이 있으면 그래, 세상만사 양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

눈앞을 어지럽히는 글이 또 하나 있어. 가급적 삼가라는 '3밀회피'라는 신조어도 생겼어. 밀폐, 밀접, 밀집 장소 금지, 피하기 따위. 이렇게 네놈은 밀, 밀, 밀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냥, 그냥 조여들게 하는구나. '사회적 거리두기', '한 칸 띄워 앉기' 이런 일들과 함께 단계적 사회 두기란 낯선 말도 유행시키는, 도대체 네놈으로 인한 이 '밀'자가 숨 막히게 하는구나.

숨 막히게 하는 것은 또 하나 있어. 어르신이나 특히 기저질환자의 경우 정신건강실태를 조사해야 한다는 거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지만 네놈으로 인한 우울감, 무력증 등으로 매사에 흥미를 못 느끼고 죽는 게 낫다고 생각 하는 측도 없지 않다는 것이야. 특히 OECD 국가 중 자살율이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는데 4,50대의 남성이 높다는 거야. 고용문제로 수입 감소, 실직 등이 가장 큰 부하가 된다는 거야. 안타깝게도.

코로나 광풍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서로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 될 거로 보여. 도대체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사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대며 온갖 고생을 다했나 싶은 거지. 지구촌 어떤 나라에서는 네놈의 만행으로 사망자들을 실은 군용트럭이 줄지어 묘지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어. 난리, 전기도 아닌데 얼마나 큰 비극이냐. 그보다 더 한 비극은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건강에 대한 불확실성, 사업과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그래, 이것보다 더한 불확실성은 어디에 있느냐. 우울이라는 코로나 블루, 분노를 상징한다는 코로나 레드, 그리고 절망까지 뜻한말 코로나 블랙. 그래 이 모두가 다 네놈이 꼬집어 온 것이구나.

코로나 이놈 불작시면 세월이 가도, 가는 세월 따라 갈 줄 모르는구나. 계절이 변해도 뿌리가 드러나지 않는구나. 세상만사 비대면이 우선하니 그래 잘되었다, 네놈 꼴 보지 않게 연구, 연구, 또 연구 중. 네놈과도 비대면이다. 상종하기 싫은 차에 이래저래 잘 되었다. 강물이 바다같이 범람하여 소떼들 지붕 위로 올라가고 가뭄으로 대지가 타들어 가는 가슴 아픈 모습도 보지마는 네놈과는 정말 비대면, 비대면이다. 이번 기회를 통한 큰 소득은 서로가 소중한 관계에 있다는 거지.

앞으로는 질병중심이 아니라 인간중심의 대책이 필요하다고들 하는 말도 들리고 있어. 그런데 뒤를 보니 이 바쁜 세상만사 어찌려고 세종로 한가운데 산성이 웬 말이나. 테스 형 처방 좀 알려 주오. 노랫말 대신 코로나19 그놈에게 따끔한 회초리 한 대 들어 주오. 두 번 다시 얼씬 못하게.

그러나 어찌할꼬. 추위가 다가오면 '바이러스 대유행'이란 경고가 있는 판이니.(2020년 10월)

『계성동창회보』는 동문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계성동창회보가 동문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계성동창회보』는 총동창회 활동 소식 이외에도 각 기수별, 지역별, 직능별, 해외 동문회 소식 등을 동문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문 개개인의 동정(승진, 이동, 개업, 경조사 등)과 그리운 모교소식, 사회 가계각층에서 활동하시는 동문들의 폭넓고 생생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동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모교와 총동창회의 가교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성동창회보』는 2021년 67호에도 계성인들의 편안한 소통의 장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회보 구독료 납부는 동창회에 대한 동문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회보 구독료 (1년 30,000원)

대구은행 1906-1906 / 신한은행 01906-1906-1906

예금주 : 계성학교 총동창회

▶ 회·보·자·료·접·수·처 ◀

계성총동창회 사무국 :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37, 811호(대신동, 계성빌딩 811호)
TEL. 053)255-3900 FAX. 053)256-4942 E-mail : keisung1906@hanmail.net
홈페이지 : 계성학교 총동창회 www.keisung.or.kr

소유하고 계신 계성학교 관련자료(사진, 글, 기타 자료)를 총동창회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EISUNG Alumni VOL 67

기별소식

맥퍼슨관 전경

(1913년 9월20일 완공)



49회

회장 설춘수 총무 조영구

2020년 48차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 개최

49회 동기회는 2020년 48차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수성구 달맞이 슷불갈비에서 31명의 동기생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회장 설춘수, 총무 조영구 동기등 임원모두 유임 되었으면 2018년도부터 동기 '만남의 날'을 정하여 지난 10월에는 홍도, 흑산도, 목포를 2박3일 일정으로 20명의 동기생이 참석한 가운데 즐거운 시간의 가지며 동기의 정을 나눴다. 2021년에는 울릉도, 독도 탐방여행 계획을 세워 추진할 예정이다.

49회는 지금도 옛 시절과 다름없이 동기회보(176호), 만남의 날, 행사를 가지며 주말에는 동기회 사무실에 많은 동기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동기간의 깊은 우애를 다지고 있다.



50회

회장 김봉호 총무 유수광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모임을 가지지 못한 50회동기회는 수성동에 소재한 동기회 사무실에서 매일 동기들이 모여서 당구, 바둑 등으로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12월17일 50회 동기회는 77세 희수(喜壽)를 맞이하여 동기회 사무실에서 30여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조그만 친구들과만의 잔치를 열고 77세를 자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52회

회장 김윤식 총무 정하룡

동기회 사무실 개소식

52회 동기회가 2020년 11월 11일 수성구 수성로에 오랜 세월의 기다림 끝에 동기회사랑방인 사무실을 개소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김윤식 동기회장을 비롯한 24명의 동기생이 참석해 동기회 사무실 개소를 축하하였고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동기회 행사를 전면 취소한 가운데 열린 개소식이라 더욱 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날 전임회장으로 수고한 전성조 동기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고 동기회 사무실을 제공한 배중철 동기에게도 감사패가 전해졌다. 모든 행사가 끝난 후 오찬을 함께하며 친구간의 우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53회

회장 이원근

재경 동기회 집행부 동창회 방문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친구들이 매년 한데 모여 등산하는 만남의 산행이 코로나19 땀에 무산되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아쉽지만 거리 두기 방역시책에 동참하기 위해 재경 동기회(회장 김형일)집행부만 본부를 방문했다.

오랜 기간 고향을 떠나 있었기에 뇌리에서 희미해져 가는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몇 군데를 동기회장(이원근)의 안내로 둘러보았다. 먼저 백경진 동기가 운영하는 “대곡산업”을 찾아 동종업계 국내 최고의 회사를 견학 후 자리를 이동 동창회 사무실을 방문 하였다.

졸업한지 50여년이 지나 옛 추억을 회상하며 대신동 모교를 방문하여 사무총장의 안내로 구 교정을 돌아보았다. 3·1운동의 산실 아담스



관 지하를 견학하고 약령시장, 계산성당, 청라언덕 등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 주요소식 및 동정

◆ 명복을 빕니다. ◆

김영수 동기 별세. 01.18	한영기 동기 처 별세. 01.27
하무열 동기 별세. 04.04	이형환 동기 장모별세.05.23
이승모 동기 부친별세. 05.23	권상봉 동기 모친별세. 11.12
◆ 재경동기회 본부방문 11.24 월례회 개최 11.27	



54회

회장 백용기 총무 정태우, 이상철

정기총회 개최

54회동기회가 2020년 12월 3일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덕영빌딩 대연회장에서 동기부부 참석하여 가진 총회에서 결산 보고 및 감사보고에 이어 백용기 동기회장의 인사와 이재윤 총동창회 회장의 축사로 진행되었다. 한편 신임회장에는 이상철 동기가 맡아 한해를 이끌게 되었고, 전임 백용기 동기회장에게 총동창회장의 감사패 수여가 있었다.



가을 야유회 개최

올 한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54회 동기회는 2020년 11월 14일 가을야유회(대구수목원)를 개최하여 50명의 동기가 참석하여 아름다운 국화길 향기를 만끽하였다. 파크골프 월례대회, 이사회, 성산회 등 회의를 개최하고 동기회 소식지를 발간하는 등 알찬 한 해를 보냈다.



◆ 명복을 빕니다. ◆

이효창 동기 별세 : 8월7일 우명정 동기 부인상 : 9월26일
 권광인 동기 모친상 : 11월12일 권숙렬 동기 별세 : 10월19일



55 회 회장 김광현

“동기회 정기총회” 가지다

55회 동기회가 2020년 6월 20일 침산동소재 '장수촌'식당에서 30여명의 친구가 참석한 가운데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로 늦은 정기총회를 가지고 2019년도 결산보고 와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고 그동안 총무 없이 혼자 동기회를 이끌어온 장상환 회장에게 총동창회 회장의 감사패 증정과 동문들의 많은 박수로 노고를 위로했다.

이에 2020년을 수고할 동기회장에는 김광현 동기가 선임되어 한해를 수고하게 되었다.





57회

회장 신영호 총무 김규삼

“야유회를 개최하다”

2020년6월14 동기회 야유회를 달성군 가창 우륵리(고향 염소집) 에서 50여명의 동기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춘계 동기회 야유회 겸 회식 자리를 가졌다. 이날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많은 동기부부가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이날 초청한 안기원 밴드 의 연주와 노래자랑 순서를 가지고 행복한 하루를 만끽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 행사를 성원해준 많은 동기들과 57회 동기부인들의 모임인 “계성57여성회”의 지원에 감사를 전한다. 올해는 고교졸업 50주년 및 고희(古稀)를 맞이하여 연말에 잔치를 계획 하였으나 코로나의 악재를 만나 무기한 연기하는 아쉬움을 가졌다.



▶ 정기총회를 개최하다 ◀

2020년도 정기총회를 1월17일 대명동 대원숯불갈비 에서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9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는 2019년도 회계감사 및 보고를 시작으로 동기회 제39대 회장을 선임 하였다.

신임 회장에는 신영호 동기를 총무에는 김규삼 동기가 유임되어 한해를 이끌게 되었다.





▶ 총동창회 신년교례회 참석 ◀

2020년1월9일 총동창회 신년교례회에는 재경동기회장 임원택 동기가 참석하여 대구동기회와 교감을 시간을 가지고 그동안 총동창회 행사에 57회 동기회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시간을 가졌다.

▶ 동기회 골프대회를 개최하다 ◀

10월12일에는 충북단양에 위치한 대호단양CC에서 1박2일로 동기회 친선 골프대회를 열어 동기회의 결속을 다지며 화합의 시간을 가지다. 이날 친선골프대회에는 9개팀 36명의 동기가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 뜻깊은 행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박희규, 이항직, 지차호, 김우승 동기를 비롯한 참석하여준 모든 동기를 에게 감사를 드리며 10년후 졸업60주년을 기약 하면서 57회 합동모임에 낙오자 없이 전원 참석하는 날을 고대하면서 57회 화이~~팅.



63회

회장 박성호 총무 박성현



▶ 총동창회 정기총회참석

2020년 1월 9일 인터볼고호텔에서 개최된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에 동기 13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 회장단 협의회

2020년 8월 19일 마시들계산점에서 회장, 총무, 직전회장(총무) 수석부회장, 이성울, 정관표, 김진도 이상8명의 동기가 참석하여 동기회 오오등행사 실시여부 및 각종 체육대회 행사 일정등을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으나 코로나의 확산으로 아쉽게 취소되었다.





▶ 63회 기우회모임

10월18일 성서 궁전기원에서 바둑을 사랑하는 동기 17명이 참석하여 친선 바둑모임을 가지고 동기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이 되었다.

▶ 골프동호회

11월11일 의성 파라지오CC에서 10명의 친구가 참석한 가운데 골프회 정기모임을 가지고 모처럼 코로나 일탈에서 벗어나 즐거운 라운딩을 가지는 시간이었다.



▶언어문화 연구회 개소식

모교 교장으로 퇴임한 유철환 동기가 새로운 학문연구에 증진할 언어문화 연구회를 강울빌딩5층에 개소하고 8월 28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날 6명의 동기가 참석하여 축하 해주었고 많은 동기들이 개별로 방문하여 창립총회를 축하했다.

▶▶동기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가시다

지난 8월 동기회 회장단 협의회를 가지고 동기회 행사인 오오동행사, 체육대회등 일정을 논의 하였으나 코로나 확산으로 모든 행사를 취소하였다. 동기회는 계획 회, 테니스회, 기우회, 계심회, 골프회 등 많은 모임을 가지고 동기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하고 있고 12월5일에는 “영남별장” 식당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가지고 올해 결산보고 및 신임 회장단을 선출하였다.

신임회장에는 정성재 동기가, 총무에는 정관표 동기가 선임 되었다.





65회

회장 천강현 총무 홍동석

“스크린 골프 동호회를 조직하다”

2020년 스크린골프동호회 월례회를 스타스크린 골프장에서 모임을 가졌다. 천강현 동기회장, 홍동성, 권택성 총무와 65회 “스골모” 모임을 찾아 국밥을 대접하고 동기들을 격려했다.

65회 스크린골프 동호회는 31명의 동기가 모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동기회의 중요한 소모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 만수회(재경65회 산우회)

재경65회 산우회 친구들이 서울대공원 둘레길 번개모임을 가졌다. 14명이 친구가 참석해 10시에 대공원역에 모여 8km 구간의 둘레길을 걷고 전주집에서 간단한 뒤풀이로 일정을 마무리했다.(참석동기:박종양,윤재현,박재성,류해근,이문근,최용원,정광식,한재동,유하상,남철우 치윤철,오세정,손세옥) 동기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줬다.



▶ 동기회 고문단 간담회

2020년 10월 21일 동기회 고문단 간담회를 가져다. 동기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간담회를 통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회의로 날짜와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집행부 여건에 맞추어 정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코로나 등으로 저조한 동기회비 납입 독촉 등 현안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정기총회 개최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송년회 및 회장단 이.취임을 2020년 12월 5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 홀에서 41명의 동기가 참석하여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올해의 결산보고와 함께 내년부터 65회동기회를 이끌어갈 임원진 선출하고 동기회장에 박석현, 수석총무 김진걸, 재무총무 도용경, 홍보총무 군택성, 섭외총무 김원일 동문을 선출하고 희망찬 내년을 기약하며 행사를 마쳤다.



▶ 친선 골프대회

2020년 7월 4~5일 양일동안 문경C.C에서 전국 각지에서 56명의 친구가 참석하여 우정을 돈독히 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동기회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 하였다. 장마기간이라 날씨 걱정, 코로나 걱정, 노심초사 하던 때라 조심스런 상황 속에도 소중한 동기애로 뭉쳐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 많은 동기들이 응원하고 찬조 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기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65동기들 “사랑 합니다”



동기동정

박동진 :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사건 조사단)발령
박해식 : 방송분쟁 조정위원 위촉

◆ 명복을 빕니다. ◆

남철우 : 빙모상(3.13) 이재학 : 빙부상(7.24)
김동욱 : 모친상(7.25)



69회

회장 배만동 총무 김원조, 윤준학, 박중근

69회 동기회는 지난 2020년 8월 11일 울진참가자미에서 26명의 동기가 참석하여 2차 이사회를 가졌다. 하반기 회비 사용에 관하여 안전심의를 하고 졸업 40주년 대비 회비 적립에 초점을 두고 논의 하였다.

또한 2020년 12월 7일 수성구 소재 '비원'에서 30여명의 동기가 모여 조출한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제29대 동기회 회장에 강정규 동기를 선출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 하였다. 강정규 동기는 “동기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며 ”동문들의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다.



재경 69회 회장단 모임 열려

지난 2020년 7월 7일 역삼역부근 ‘엘이베리코’ 에서 재경동기회 회장단 모임을 가졌다. 권영혁, 임현철, 박도순, 정해룡, 곽인걸, 김성홍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식사를 하며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친구간 거리두기”로 변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최성훈 친구의 아쉬움을 뒤로하며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영혁 회장의 식비 찬조 감사합니다.



동기친선 골프대회를 가졌다.

운동하기 좋은 포근한 날씨 속에 동기 골프동호회 친구들이 체력증진과 동기간의 우의를 다지는 친선골프모임을 2020년 12월 10일 청도 그레이스CC에서 가졌다. 모처럼 코로나19에서 일탈하여 즐거운 라운딩의 시간을 즐겼다.

특히 게스트로 우정 참석한 우경성 동기가 골프입문 4개월 만에 수많은 골퍼들의 소망이자 자랑 거리인 “hole in one”을 기록하는 행운을 차지하여 평생 기억에 남을만한 추억을 간직 하게 되었다. 동반 라운딩을 하게 된 친구들에게 많은 축하의 인사를 받고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명복을 빕니다. ◆

정 면 :모친상(3.12) , 곽인걸 :모친상(5.27), 이상인 모친상(6.10), 이용희:부인상(7.26), 이동훈:부친상(9.13), 윤희웅:부친상(10.13), 손민수: 빙부상(10.20), 장덕창:모친상(10.23), 이재문:모친상(5.23), 이창우:부친상(5.23), 신병득:모친상(7.18) 김진수:모친상(11.8) 서호정:빙부상(11.20), 최재원:부친상, 김영대:빙모상, 공인상:모친상(12.6), 장원경:모친상(12.8)



70회

회장 최원길 총무 박준석

제1회 계성70회 동기회장배 골프대회

70회 동기들의 단합과 동기회 발전을 위하여 『제1회 계성70회동기회 친선골프대회』가 6월 21일 고령 오펜CC에서 10팀 40명의 많은 친구가 참석해서 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동문들이 하나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1부에는 최원길 동기회장의 인사말과 박재국 골프모임 회장의 경기규정 설명이 이어졌으며, 동기대표(최원길, 박재국, 손재호, 최형경) 친구들의 시타 후 신페리오 방식으로 각 조별로 라운딩을 시작했다.

2부는 클럽하우스에서 식사를 나눴으며 3부는 고인이 된 선생님과 동기들을 위한 묵념을 시작으로 동기회사 만찬사, 총무의 찬조현황보고, 골프모임 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이날 처음으로 참석한 김기현, 김홍석, 우무정, 이충원 친구의 인사말에 이어 경기결과 보고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골프대회 시상, 행운상 등이 추첨으로 일정을 마쳤다. 차익근 동문의 교가 선창으로 마지막을 뜨거운 우애로 장식했다. 참석해준 친구들에게 감사드린다.



77회 회장 전용철 총무 우준하 피재순

77회 동기회는 지난12월4일 오후7시 죽전동 소재 “전원갈비”에서 30여명의 친구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가졌다. 이날 정기총회 에는 그동안 동기회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전용철 동기회장이 이임하고 최영열 친구가 2021년 동기회장에 선출되어 수고 하게 되었다. 올해 졸업30주년 행사를 앞두고 많은 준비 시간을 가졌으나 코로나19 라는 악재를 만나 많은 아쉬움 속에 후일을 기약했다.





78회

회장 이철승 총무 김진하

“처음으로 행사를 진행하다”

2020년 12월 4일 동기들이 간만의 만남을 가졌다. 이번에는 총회 겸 송년회로 시내 중심부의 식당을 예약하고 대구근대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약전곡목 “산” 한정식에서 모임을 가졌다. 반가운 동기들과 동기회 활성화를 모색하는 시간과 2021년 졸업30주년을 준비하는 차기임원을 선출하고 차기회장에 권혁제 동기를 선출하고 2년간 동기회장직을 수행한 이철승 동기에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82회

회장 양동훈 총무 김종형, 권혁태, 노동현, 이태우, 이호림, 윤동섭

2020년은 82회 동기회가 결성된 지 7년째 되는 해이다. 올해는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동기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한해였다. 특별히 82회는 올해 졸업 25주년 모교 방문 ‘홈 커밍데이’ 행사를 준비 중에 심해진 코로나19 사태로 부득이하게 행사를 후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해 아쉬운 마음을 내뼠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작년에 결성된 재경 동기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동기모임을 가져 동기간 우애를 다졌다. 끝으로 2021년은 ‘홈 커밍데이’ 행사를 잘 준비 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82회 재경 동기회 결성)



(총동창회 신년교례회에서)



(동기 골프대회)





KEISUNG Alumni VOL 67

지역 동창회 소식

동산관 야경
(1967년 9월 완공)

재 경주동창회 회장 도 황(68회) 총무 박순철(73회)

신년회 겸 총회 개최

재경주동창회는 2020년 1월 14일 황성동 백리향에서 이종현(39회 전모교영어교사)동문 외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 겸 총회를 가졌다. 이 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였고 신임회장에 도황(68회 경주통증의학과 원장)을 선출하였고 총무에는 박순철(73회 경주문화고등 교사)동문이 연임하게 되었다.

소수의 인원이지만 경주동창회는 동문들의 단결력과 끈끈한 동문의 정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



재 대전동창회 회장 김문환(64회) 총무 강주진

정기모임 개최

대전동창회(회장 김문환 64회)는 어려운 시기에 그동안 모임을 가지지 못하다 2020년 8월14일 10여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정기모임을 가졌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모임을 지향하는 가운데 조출한 모임을 가지며 다음을 기약했다.





재 뉴욕동창회

회장 권혁태(47회)

▶ 신년하례회 및 정기총회 개최

2020년 2월 12일 29명의 재 뉴욕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 및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정인국(55회)동문의 예령에 따라 상호 마주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축복하며 상견례를 가지고 동문 간 덕담을 나누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현 회장인 권혁태(47회)동문이 연임하기로 만장일치 박수로 의결하였다. 회계보고는 배포된 서면의 회계를 승인하고 신입 임원진 구성은 빠른 시일 내로 선정하고 올해는 새로운 가족축제 (계성, 신명, 계명대)출신자를 발굴하여 축제를 예정하고 있다.

이어진 여흥의 시간에서 노래를 부르며 오랜만에 선후배간이 정을 나누었다. 특히 정인국(55회) 동문 부인의 리드에 따라 진행된 라인 댄스로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좋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동문들과 가족님께 뜨거운 감사드립니다.

▶ 감사평

김재환 (41회) : 동문회모임에 빠지지 않으시고 참석하시는 고마우신 모범선배님! 찬송기 320 장 찬양으로 간증.

최종탁 (47회) : 불편한 노구임에도 불구하고 소리 소문 없이 무대 뒤의 모든 허드렛일을 총괄하시느라 저녁식사도 제되로 못하시는 열정!!

최고남 (48회) : 굴직하고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로 “우리가 남이가” 계성 회이팅!이라고 건배사를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함박웃음을 선사 하였으며, 부인과 함께 춘, 막베기 트롯트 춤은 영년의 화려했던 사교계의 단면을 재현시켜 주었다.

김건유 (48회) : 지난해 가족문화재에서 한몸에 주목을 받았던 타고난 바리톤의 매혹적 음색과 윗트로 우리를 즐겁게 해준 멋쟁이 키다리아저씨. 올해도 어김없이 선구자등 연속적으로 앙코르를 받으며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해 주었다.

홍대순 (48회) : 롱아일랜드에서부터 목숨 걸고 동창회에 참석한 두 사나이중 하나.

야간운전이 처지임을 잘 알고 있기에 김건유 동문과 콤비로 매칭 시켜 놓고는 안심했는데 혼자서 왕복운전을 하며 무사히 귀가함!!!

정대식 (49회) : 계성·신명의 당대 화제의 커플

김재국 (53회) : 작년에 이어 금연에도 김재환 선배님 내외분을 모시고 동쪽 끝에서 서쪽 뉴저지까지 최장거리 운전으로 동문회에 참석하신 열혈 팬. 굳건하고도 듬직한 계성맨. 그의 노래실력은 모두가 깜짝 놀람.

이영희 (54회) : 내외분 모두가 꼼짝도 않고 한자리에 앉아 계시는게 신기하던 바, 난생 처음으로 소위 노래방이란 곳에 오시게 된 데 역사적인 이 날의 소감 “그런대로 재미있고 견딜만하네요”

정인국 (55회) : 명사회로, 싱어송리더로, 가수로 합창 중 듀엣으로, 분위기 메이커로 변신 중.

이동영 (55회) : 반가운 귀빈 중국해양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

서희수 (56회) : 노래방 체질이 아니라 좀 일찍 퇴실 내년을 기약!!

마치호 (57회) : 또 한쌍의 계성·신명의 환상적 커플 뉴저지에 입성하자마자 동문회에 출현하였던 바 등장즉시 유능한 인재로 회장 눈에 띄혀 입구 데스크에서 계속 수고하시느라 고생한 역세게 운 없는 동문.

이수파 (57회) : 왕년에 밤무대 출연하느라 돈 꽤나 갖다 바쳤을 것 같은 명가수 총무가 아니었으면 아마 혼자서 마이크를 밤새 독차지 했을 터인데.. 아쉽다 아쉬워!!!!

이번 모임 준비하시느라 고생 했습니다.

정덕성 (58회) : 동문가족문화재 행사 때 부녀 듀엣으로 우리의 심경을 울려 주며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주셨던 바이올린의 대가.

김건호 (62회) : 그야말로 수 10년 만에 속세로 하산하며 동문회에 룰백하신 반가운 동문!!

간만에 노래방에서 싱글 댄싱을 신나게 자랑하신 산신령님.

그간 그 열정과 재주, 이를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박창현 (62회) : 노모님을 위해 단기간 한국행을 하신 효자. 동문회 날짜 맞추느라 얼마나 고심 했을까?!!
그 촌중에서도 동문회기의 삼발이를 신규 구입하여 태평양을 건너오신 우리의 호프.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다음에는 마나님 꼭 뵈시고 오시기를...

박무희 (68회) : 모처럼 동문회에 참석하신 직전 회장님 바쁜 중에 어려운 걸음 하시어 고맙습니다. 선배들의 기세(?)에
놀려 금년에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으나 내년에는 더 많은 동년배 젊은 동문들과 함께 참석 하시어
우리 분위기를 180도로 역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파 파이팅!

송재환 (71회) : 왕년의 성악. 여정 중이었음에도 잊지 않고 동문회 모임에 참석한 그 열정에 기립 박수를 보냅니다.
무척이나 소박한 음조로 어부인과의 듀엣, “이세상에 하나 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라는 노래로
그들 커플의 사랑을 확인 . 과시 하였음. 그 사랑 영원 하여라~~~~~

장재동 (74회) : 오랜만에 등장하신 우리의 막내 동문님..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약속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새 아이들 둘씩이나 대학에 입학했다네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부터는 자주 보게 되기를 기대 합니다. 2,3년 후에는 싱그러운 젊음의 풋풋함이 넘쳐나는
계성동문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총평**

석 보증수표 동문 10여명이 어쩔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득이 불참할 수 없어 분위기가 다소 썰렁할 것으로 예상되
었으나 소장 동문들이 다수 참가하게 됨으로써 열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고 있습니다. 졸업기수 60~70회 이후의 약 20여명 정도의 동문들이 대거 참여할 때
주도 세대가 자연스럽게 교체되면서 우리 동문회가 본 궤도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금번 동문회모임을 위해 수고하신 총무님을 비롯한 모든 동문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재 진주동창회 **회장** 성문경(60회) **총무** 이승용(74회)

진주동문회가 드디어 월례회를 가지고 2020년 첫 행사를 시작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지속적인 모임 연기를 거듭한 끝에 동문 단합을 위한 월례회를 2020년 8월 18일 진주 초복로 “별 그리고 갈비살” 식당에서 10명의 진주거주 동문이 참석하여 정겨운 식사자리를 마련하였다. 동문들과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동문간 거리두기가 빨리 종식되는 그날을 기약했다.





KEISUNG Alumni VOL 67

동호회소식



계성학교 야구부
(1913년)

계성 마라톤 동호회 회장 신상규(65회) 총무 추쌍엽(71회), 김정훈(71회)

계성 마라톤 동호회가 12월2일 “아현정”식당에서 30명의 동문 ,가족이 참석하여 정기총회 및 송년회. 회장 이·취임식 가졌다.

고동현(57회)고문의 축사 와 그동안 마라톤회를 위해 수고한 서관호(63회)동문의 이임인사 총동창회장의 감사패전달. 감사보고, 신임회장 선출 순으로 진행 되는 동안 맛있는 식사시간을 가지며 덕담을 나누었다 이날 신임회장 에는 신상규(65회)동문이 선출되어 인사말에서 젊은 기수들을 많이 참여시켜 마라톤동호회를 활성화를 위해 “봉사 하겠다“ 고 했다.



계성 목장회 회장 박현규(59회) 장로 총무 정규동(61회), 박의순(62회), 정국현(64회)

계성 목장회(목사, 장로)는 2011년 5월30일 제1회 총회를 기점으로 시작해 600여명의 목장회 회원이 매년 정기총회를 가지며 학교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올 7월 2일에 가창에 소재 대덕전원교회(담임목사 배재규 61회)에서 40여명의 회원.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가지고 신임회장에 박현규(59회)동문. 총무에는 정규동(61회)동문, 박의순(62회)동문, 정국현(64회)동문이 선임되어 봉사하게 되었다.



계성 산우회 산우회장 정인택(66회) 등반대장 이인직(60회) 총무 이강전(73회) 신홍범(79회)

그동안 매달 등반을 실시하던 산우회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으나 시산제, 총동창회 등반대회, 하계야유회 및 산행, 4번의 산행모임은 거리두기 격상 전에 뜻 깊게 치렀다.

2020년 12월 6일 정기총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2년 동안 회장으로 수고한 김충옥 동문, 6년 동안 총무로서 고생한 양명환 동문에게 총동창회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두 동문의 헌신적인 수고에 산우회 전 회원 감사의 마음과 축하의 박수로 정기총회를 마쳤다.



아담스 야구단 단장 이영재(82회) 총무 이시규(94회)

2020년 발대식 개최

안녕하십니까? 계성고등학교 총동창회 소속의 야구단 계성아담스입니다.

저희 계성아담스는 2014년 처음 창단이 되었으며, 82회 이영재 단장을 필두로 74회 졸업생부터 100회 졸업생까지 총 63명의 다양한 기수의 선, 후배님이 모인 모임입니다. 2020년 상반기 효진파크리그 및 대구광역시 소속의 달성군 리그에서 우승을 이뤄낸 동창애 뿐만 아닌 실력 또한 겸비한 야구단입니다.

이외 매년 정기총회 및 다채로운 행사를 바탕으로 선, 후배들간 허물을 없애고 계성고등학교라는 이름 아래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북돋아 주는 따뜻한 모임을 이루고 있습니다.

매년 사회인 야구에 관심을 가진 졸업생 선, 후배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선, 후배의 관계는 날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하여 계성고등학교 졸업생 이름으로 모인 계성아담스야구단의 위상은 대구 사회인 야구 전역에 떨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의 따뜻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총동창회 및 계성아담스의 이멤버가 다른 누군가의 다른 동창생들에게 리멤버가 될 수 있는 뜻 깊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 드리며, 저희 야구팀과 함께 하고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COVID-19로 인하여 힘든 한 해를 보내셨을꺼라 생각하며, 계성고등학교 총동창회 및 모든 선,후배님들의 가정에 안녕을 기원합니다.





KEISUNG Alumni VOL 67

동문동정



교 가

1) 앞에 서는 것 비슬산이요	2) 배움에 주려 올고 있는 자	3) 진리로 터를 세운 이 학교
뒤에 팔공산 들렀다	여기 와 배부를 얻어라	새 생명 사해에 흐르다
푸른 언덕에 계성학교는	어름에 서서 방향하는 자	천지는 배록 먼갈지라도
반공에 우뚝이 솟았네	너희의 찾는 길 에 있다.	계성의 정신은 영원히

작사 박 태 준
작곡 ANONYMOUS

후렴. 계성 계성 만세라 우리 계성 만만세 햇빛과 같은
너의 광채를 세상에 비취라 영원무궁 비취라 우리의 자랑인 계성이



청포도 사랑

이화춘 작사
나화람 작곡
도미 노래

Swing

과
과

랑 - 새 노래 하 는 - 청포도 넣살아래 로 어
랑 - 새 노래 하 는 - 청포도 넣살아래 로 어

어 - 편아가 씨 어 - 손 잡-고가잔 - 다
어 - 편아가 씨 어 - 손 잡-고가잔 - 다

그윽히풍겨주는 포도향 기- 달콤한첫사랑의 향 기-
과망게억이거는 포도열매- 청글이무르익은 열매-

그대와단들이서 속삭이면- 바람은산들바람 불어준다네 과
희망은하늘높이 뽀뽀지개- 구름은꿈을싣고 두둥실떴네 과

랑 - 새 노래 하 는 - 청포도 넣살아래 로
랑 - 새 노래 하 는 - 청포도 넣살아래 로

그 - 대 와 단 들 이 서 오늘도 맺어보는 청 포 도 사 랑
그 - 대 와 단 들 이 서 오늘도 맺어보는 청 포 도 사 랑

D.S.

청포도 사랑

노래 : 도미(오종수 40회)동문
도미(오종수) 동문은 1934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계성고, 육군사관학교 중퇴, 고려대학교 영문과 졸업.
1951년 대구 오리엔탈 레코드가 주최한 전속가수 입상.

1954년 "신라의 복소리"로 가요계 데뷔
1956년 필생의 히트곡 "청포도 사랑" "비의탱고" 등 100여곡의 노래.
1984년 미국뉴욕으로 이민 (1934~현재)



이수남(50회)
제1회 백기만 문학상수상

이수남 동문이 2020년11월7일 대구 중구 “한국의 집” 연회장에서 개최된 제1회 백기만 문학상 시상식에 영예로운 1회 대회 수상자로 선정되어 수상하게 되었다. 대구문인회 회원이며 국제펜 대구지역 회장을 역임한 이동문은 그동안 녹조근조훈장,국제펜클럽 아카데미문학 상, 제1회 현진건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대구에서 왕성한 문학 활동을 하고 있다.



하죽봉(50회)
서울변호사협회“명덕상”수상

변호사로 활동 중인 하죽봉 동문이 2020년11월2일 서울지방 변호사회 창립 제113주년 기념식에서 최고의 영예인 “명덕상”을 수상하였다.

서울대법대를 졸업한 하 동문은 1969년 제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72년 제5관사 법무부 심판부장, 군수사 법무부장, 제1군사령부 법무부장 등을 역임하고 197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김신길(54회)
“금탑산업훈장” 수훈

김신길(아시아텍 대표이사·회장)동문이 2020년 11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인의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기업인의 최고 영예로 꼽히는 상이다.

특히 김신길 동문은 농기계 산업분야 최초의 “금탑산업훈장” 수훈자로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지역경제에 많은 헌신을 하고 있는 기업인이다.



이재운(56회)
사)자연보호연맹 총재취임

이재운(덕영치과 병원장·계성학교 총동창회장)동문이 2020년 8월18일 개최된 자연보호연맹 총재 취임식에서 지난 17대에 이어서 제18대 자연보호 총재에 피선되어 이날 취임식을 가지며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동안 “자연보호연맹,국제로타리3700지구총재, 전국아파트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많은 봉사활동과 국

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받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임상규(56회)
2020자랑스러운 대구시민상 대상수상

경인제약(주) 대표이사로 재임 중인 임상규 동문이 제44회 자랑스러운 대구시민상 대상에 선정되었다.

모범약국과 제약기업 경영을 통해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이번 시민상에 선정되어 수상하게 되었다. 그동안 첨단의료 복합단지 대구 유치 의원, 대구빙상 경기연맹 회장을 역임 하였다.



허 염(57회)
포스코 청암상(기술상)수상

허 염(실리콘마이티스 대표이사)동문이 반도체 전력관리통합칩(PMIC)를 국내최초로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스코 청암재단에서 실시한 2020년 “포스코청암상” 기술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포스코청암상은 2006년 제정하여 과학, 교육, 봉사, 기술 등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선정되는데 허 염 동문이 수상한 기술상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에게 시상하는 최고의 상이다.



김춘수(58회)
“금탑산업훈장” 수훈

김춘수(한화 부회장) 동문이 제47회 상공의 날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다. 그동안 전문경영인으로 42년간 한화그룹에 재직하면서 그룹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사장, 한화차이나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사업내실화 및 신성장동력 발굴 등 산업경쟁력을 제고한 공로가 높이 평가되어 이번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전점석(58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표

전점석(전 창원YMCA사무총장)동문이 2020년 10월 30일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표로 임명되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수여 받았다. 전점석 동문은 81년 부산YMCA 간사로 시작하여 경남환경교육

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진주YMCA, 창원YMCA 사무총장을 역임하였고 지금까지 다양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홍의락(60회)
대구광역시경제부시장 취임

전)국회의원 홍의락동문이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에 취임하였다. 2020년 7월 1일 취임식을 생략하고 임용장 수여식을 마치고 업무에 돌입하여 시청부서별로 방문해 간담회를 마치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취임일정을 마쳤고 어려운 대구지역 경제가 새롭게 비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의락 경제부시장은 대구 북구에서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



나주영(62회)
초대 직선 포항시체육회장

제일테크노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나주영 동문이 포항시 체육회장에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하였다. 제11대~13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나동문은 지역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또한 포항시체육회 제정 위원장으로 활약하고 포항과 경북 스포츠발전에 기여하고, 모교동창회 부회장을 맡아 총동창회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김사열(63회)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취임

경북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로 재임 중인 김사열 동문이 지난3월 장관급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임용되어 취임하게 되었다.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 되어가고 지방침체가 심각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모두의 숙원으로 우리 모두가 국가균형발전에 힘쓰고 있는 김사열 동문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임무를 완수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이 필요하다.



김동식(63회)
포항대학교 부총장

포항대학교 교수(기계시스템공학)로 재임 중인 김동식 동문이 부총장에 선임되었다. 한국자동차공학회 대구, 경북

지회장을 역임한 김 동문은 그동안 포항 교육계 발전에 헌신하여 왔다.



김경득(65회)
DB메탈 대표이사 사장 승진

합금철 메이커인 DB메탈 부사장으로 재임 중인 김경득 동문이 2020년7월 DB그룹 정기인사에서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하여 DB메탈을 이끌게 되었다. 김 동문은 1986년 동부제철 입사 후 동부USA법인장, 동부제철상무, 2014년 DB메탈 부사장을 역임했다.



방진우(65회)
베트남노동훈장상 수상

베트남 세계제일의 신발메이커인 NIKE 신발공장인 창신 VJ CEO로 있는 방진우 동문이 한국기업인 최초로 노동, 창의성, 국가건설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세우고 경제 발전 및 사회공헌활동에 업적을 인정받아 노동훈장상을 받아 본인과 계성동문의 이름을 빛나게 하였다.



김성근(65회)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을 역임한 김성근 동문이 2020년9월1일 제24대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했다. 김 동문은 그동안 서울 및 충북중등학교 교사를 거쳐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실 행정관, 충북교육청 혁신기획비서관, 단재교육연수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경종(65회)
고령교육장 취임

박경종 동문이 신임 고령군 교육장에 취임했다. 박 동문은 1983년 교직을 시작해 교육연구사, 장학사, 교감을 거쳐 석포중교장, 경북교육청 과학직업과 장학관, 과학교육원 교육연구관, 경산과학고 교장을 역임한 후 제37대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취임했다.



신동식(67회)
구미교육장 취임

2020년 3월1일 신동식 동문이 제39대 구미교육장에 취임했다. 1989년 울릉중학교에서 교편을 시작한 신 동문은

본청 과학직업과 장학사, 영천고등학교 교감, 산북중학교 교장을 거쳐 본청 과학직업과 장학관을 역임했다.

“참좋은 구미교육”을 위하여 구미교육지원청 직원들의 역량을 모아 함께 헤쳐 나갈 계획이다“ 며 부임 인사를 했다.



박현동(67회)
제21대 계성고교장 취임

박현동 동문이 2020년 3월 1일 모교 교장으로 부임하였다. 제14대 대구교총 회장, 제17대 전국시도교총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박 동문은 경상중학교 교장 재임 시 교육인생의 마지막 여정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 대구를 대표하는 학교로 재도약시키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 모교에 교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조경래(68회)
경북청소년수련원원장 취임

조경래(경북청소년 수련원부장)동문이 지난 8월 경북도 인사에서 수련원 원장으로 승진 발령되었다. 그동안 조 동문은 청소년 육성을 통해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민훈장을 수훈 받는 등 경북 청소년의 영원한 벚“으로 알려지며 청소년문화 활성화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노태악(68회)
대법원 대법관 취임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법률가로 평가받는 노태악 동문이 국회 임명동의안을 거쳐 대법관에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노 동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하여 30여 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경험한 법률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 사법연수원16기로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 법원장을 역임하였다.



이필환(69회)
계명대학교 부총장선임

계명대학교 교무처장으로 재임중인 이 필환 동문이 2020년9월1일부로 계명대 교무부총장 으로 선임되었다. 그동안 한국 영어학회 회장, 대검찰청 검찰수사

심의의원,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평가자문위원, 학교법인 계성학원 이사, 계명대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임준식(69회)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장

고용노동부 인천지청 근로감독관 으로 재직 중인 임준식 동문이 2020년7월1일부로 고용노동부 강원도 태백지청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게 되었다.

지역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 노사관계안정, 산업재해예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전등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바지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희경(69회)
법무부 부산구치소소장 취임

제65대 부산구치소 소장에 우희경 동문이 취임하였다. 1990년 교정간부로 임관 2017년 부이사관 승진 후 부산교도소장, 창원교도소장, 교정본부보안과

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했다.

우 동문은 취임사에서 “새로운 역량, 창출을 통한 교도행정 변화의 국민 체감“을 목표로 내걸었다.



장수목(69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 본부장

장수목 동문이 2020년7월2일 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경남지역본부 제13대 본부장에 취임했다. 장 동문은 1986년 입사해 그동안 기획조정실장, 급여보장

실 선임실장, 인재개발원 원장등을 역임했다.



차동석(69회)
LG화학 부사장

글로벌 배터리 1위업체인 LG화학의 연말 인사에서 최고재 무책임자에 차동석 동문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LG 화학에 입사후 재무세무회계팀 차장.

LG그룹 상무를 역임한 재무통으로 경영개발원 상무, 서브원CFO, 구조조정본부 부장 등을 역임 하였고 그룹대내외에서 탄탄한 재무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황대일(70회)
보국훈장 국선장 수훈**

육군군수사령관(육군중장)에 재임중인 황대일 동문이 제72회 국군의 행사에서 국가안전 보장 유공자로 대통령으로부터 보국훈장 국선장을 수훈 했다. 육사 43기로 임관한 황 동문은 9사단장, 1군사령부참모장, 육군3사관 교장, 육군 제1군단장 등을 역임했다.



**박은식(70회)
강릉경찰서장 취임**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경찰 간부후보 47기로 임명한 박은식 동문이 강릉경찰서장에 취임했다. 경찰청 경리계장, 강원청 청문감사 담당관, 평창경찰서 서장, 강원청 정보화 장비과장을 역임했다.



**정운진(70회)
신한캐피탈 대표이사 선임**

정운진 (신한금융그룹GIB사업 그룹장)동문이 2020년12월17일 신한금융지주 이사회 및 자회사 경영 관리 위원회에서 신한캐피탈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되었다. 정 동문은 1987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후 신한은행 입행하여 신한금융 지주회사 전략기획팀부장, 종합기획부 본부장, 부행장보, GIB 사업부문장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김종철(71회)
국방대학교총장 취임**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으로 재임 중인 김종철 동문이 2020년12월14일 제47대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김 동문은 육군사관학교 44기로 1988년 소위로 임관하여 그동안 제25보병사단72연대장.대통령경호실 군사관리관, 1군단 참모장, 제7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부장. 작전기획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이규문(71회)
대전지방경찰청장 취임**

제16대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이규문(치안감)동문이 취임했다. 경찰대 4기로 1988년 경위로 경찰생활을 시작한

이 동문은 그동안 경북봉화경찰서장, 서울청 형사과장, 2017년 경무관으로 승진, 충북청1부장.경찰청 수사기획관을 역임하고 치안감으로 승진 후 경찰청 수사국장 근무했다.



**이정희(71회)
법무법인 솔루스 대표변호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임한 이정희 동문이 변호사(법무법인 솔루스)로 활동한다.

육군 법무관과 서울지검 검사로 시작한 이 동문은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원주지청장, 대검과학수사부장, 창원지검장을 역임하고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청산하고 변호사 개업했다.



**황대식(71회)
롯데베르살리스엘라스토머스 대표이사**

현대석유화학과 대산유화 기술을 거쳐 2008년 롯데케미칼에 입사하여 LCUK 주재임원. 대표이사를 거치고 롯데케미칼 안전환경부분장 역임하고 지난 11월26일 “롯데베르살리스엘라스토머스” 대표이사에 내정되어 취임했다.



**장근호(72회)
울산지방경찰청 경무과장**

울산경찰서 경무과장(총경)에 장근호 동문이 임명되었다. 경찰대6기로 경위로 임용된 장 동문은 2016년 총경으로 승진 선양총영사관 주재관, 울산 남부서장, 울산경찰청 보안과장, 제74대 울산중부경찰서장을 역임했다.



**이동욱(74회)
대구시북구 구의회 의장**

이동욱 동문이 지난3일 대구북구의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서 제8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다.

이 동문은 북구(아선거구)3선 의원으로 후반기 의회는 연구하는 정책 의회상을 정립하고 구민을 선길 수 있는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추진하겠다고 “평상시 누구나 의회를 편안히 방문할 수 있도록 북구의회 문을 활짝 열어 놓겠다” 고 밝혔다.

요통 및 하지통에 대하여



길 태 영 (80회)
길 통증의학과 원장

요통은 인간을 매우 흔한 질환중 하나로 55세 이하의 환자들에게서 직장을 결근하는 원인 중 감기 다음으로 흔한 증상이다. 전 인구의 50-80%가 일생에 한 번 이상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는다. 평생 동안 유병률은 약 60 - 90% 정도이다.

힘든 일을 하는 경우 발생 빈도가 높으며, 비록 가벼운 일을 하더라도 장시간 일정한 자세로 작업을 하거나 진동에 노출된 경우, 단순 반복 동작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흡연자인 경우 발생빈도가 높다.

급성요통의 약 90% 정도는 2개월 내에 자연소실이 되며, 10% 정도는 6주에서 12주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 6개월 이상의 통증을 보통 만성 요통이라고 부른다.

요통이 만성화되면 성공적인 치유가 힘들어져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다.

즉 요통이 발생했을 경우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예후도 좋다.

요하지통을 일으키는 흔하고 주된 질환들

□ 급성 요추부 염좌

근골격계의 일부 파열로 급성 요통이나 하지에 둔탁하고 무거운 느낌을 나타내는 연관통을 유발하며, 보통 수 주일 이내에 좋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옆으로 뒤틀거나, 구부리거나, 추락,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나, 잘못된 자세에서 기침을 하거나 별 외상 없이도 발병하기도 한다.

증상은 처음에는 매우 통증이 심하고 이상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치료방법으로는 1-2주간 안정을 취하면 좋다고 하였으나, 근래에는 안정 기간을 줄이는 것이 추세이기도 하다. 신경 차단술을 할 경우 도움이 많이 된다.

□ 추간판 내장증

추간판(디스크)의 탈출 없이 추간판자체내의 파열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만성 요통 및 연관통을 호소한다. 오래 앉아 있거나, 앞으로 허리를 숙일수록 통증이 심해지며, 대개 엉덩방아, 추락, 무거운 물건을 들기 교통사고 등의 외상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

□ 추간판 탈출증

요통과 연관통, 하지 방사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리를 들어올렸을 때 이상 소견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당긴다” 고 호소하며 일반적으로 “디스크” 또는 “좌골신경통” 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만 순수한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요통 및 하지통증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보통 제 4-5번째 요추간 혹은 제 5요추와 제1 천추간 사이에서 발생빈도가 높다.

증상은 신경이 압박되는 동측 하지의 저린 증상, 근육의 소실, 감각의 이상 등이 있다.

보통 80-90%정도는 수술적 요법 없이도 안정치료, 견인 등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같은 보존적 치료로 효과를 보인다.

■ 척추 후관절 증후군

일종의 퇴행성 질환으로 요통과 하지 연관통을 호소한다. 허리를 뒤로 젖히면 통증이 더 심하며, 앉아있으면 서 있는 것보다 편하다. 통증은 주로 둔부, 대퇴부, 옆구리, 서혜부 등에 나타날 수 있다.

증상은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하나 움직이면 차차 호전이 된다. 추간관절 차단술이나 척수 신경의 후지내측지 차단술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

■ 척추관 협착증

추간판이나 척추 후관절의 퇴행성변화는 관절비후 등으로 인하여 척수관이 좁아져서 신경근이 압박되어 증상이 나타난다.

주증상은 둔부에서 하지에 저린 통증과 신경성 간헐성 파행이 특징이다. 신경성 간헐성 파행은 일정거리를 걸어가면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 앉거나 앞으로 구부릴 때 증상이 완화되거나 없어진다. 보통 환자들은 버스 한정거장을 걸어갈 때 몇 번 쉬는다고 한다.

치료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등이 효과를 보이며, 호전이 없을시 수술적 요법이 시행되기도 한다.

■ 근근막 증후군

보통 나쁜 자세, 다리길이의 차이, 피로, 스트레스 외상, 수술 후, 내장 질환과의 연관통 등에 의해 요부의 근육에 지속적 긴장을 가지고 온다. 보통 척추 기립근에 발생을 많이 하며, 중둔근 및 이상근 등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다.

진단은 촉진에 매우 간단하고 유용하다.

■ 퇴행성 무릎관절염

무릎 연골을 중심으로 퇴행성 변성이 되다 만성 병변과 골극의 형성 골경화 등의 골증식을 동반하는 질환이며 무릎 통증을 일으킨다.

중년 이후의 비만 여성에서 주로 발병하며 60대에서는 80%, 80대에서는 거의 100%가 있다고 한다. 증상은 처음 걷기 시작할 때, 보행 시, 계단을 오르내릴 때, 특히 내려갈 때와 앉았다가 일어설 때가 통증이 심하다. 초기에는 무릎 내측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무릎 관절은 보행 시에 자기 체중의 7배,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15배가 관절에 가해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체중 조절은 매우 중요한 치료 요소이다.

급성기에는 안정이 중요하며 체중을 조절하여 무릎에 무리를 주지 말고 보존적인 방법으로 물리치료 및 무릎 관절 주위의 신경차단술 등이 있고, 근래에는 재생치료 요법도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근력이 저하된 대퇴사두근을 강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신간 소개



손중철(45회) 나의 선교 이야기

지금까지 국내외 스승, 동료, 후배 교역자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았으며 그런 일들이 나를 있게 했다. 학원 선교와 군 선교 대만, 싱가포르 그리고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선교 사역을 통해 내가 기도하며 꿈꾸며 이룩하고자 했던 일들이 있었다. 그러나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나...”(욥1장 21절)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것에 그저 감사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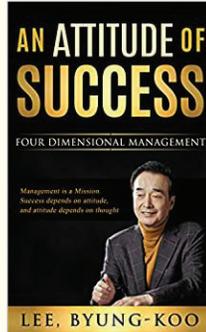
- 손중철 목사 글 中 -



박재천(50회) 신간 “77힐링 시선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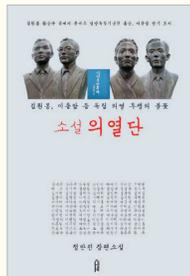
시인이자 목회자인 박재천 동문의 시집(77힐링 시선집)을 펴냈다. 이번 시집은 한 구절 한 구절이 현대인들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고 용기와 활력을 불어 넣어 기를 기원하는 작가의 마음을 담았다. 박재천 동문은 “이 시들리 인간 실존의 혁신과 통찰의 화두로 탁월한 영성의 빛으로 새벽을 깨우기를 바라며 목마른 시대에 시원한 샘물이 되는 힐링 시집이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박재천 동문은 그동안 (존재의 빛)(존재의 샘)(존재의 마음)등 다수의 시집을 출간 했으며 한국창조문학 대상, 기독교출판문화 최우수상, 깊은문학 대상, 목양문학 대상 등을 수상했다.



이병구(53회) 『석세스 애티튜드』 영문판 출간

이번에 혁신적 글로벌 전문기업 (주) 네페즈 창업자, 대표이사 회장인 이병구(53회) 동문이 2020년 12월 22일 『석세스 애티튜드』를 영문으로 번역되어 아마존에 출간했다. 출간 3일만에 아마존 비즈니스 윤이분야에서 베스트셀러 3위에 랭킹 되었다. 이 저서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직면한 현실 앞에 기존의 경영방식을 뛰어넘어 경영의 기본사실을 일깨워 주는 혁신적인 경영의 주문서라 할 수 있다. 경영학자 선정 <대한민국 강소기업가상>과 인간 경영대상 <인재개발부분> 대상을 수상한 바있는 이병구 동문은 이번의 저서를 통해 ‘기업의 가치관은 무엇이며 어떤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기업의 운명과 미래를 좌우한다’고 권두에서 밝히고 있다. 특히 미래에서 주목받는 4차원 경영의 근본, 핵심가치관, 생각, 도구 등을 밝히고 있어 주목하게 한다. 호기심과 열정이 넘치는 기업가로 알려진 이병구 동문은 벤처기업대상을 수상했으며 이화여자 대학교 겸임교수로 있다.



정만진(61회) 신간 “의열독립운동 40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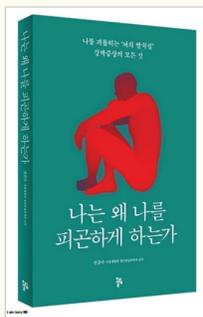
우리 역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의열독립운동 40년사가 장편소설 3부작으로 완성됐다. 올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1주년을 맞아 출판한 이번 책에는 독립선열의 구국 정신이 후대에게 계승되길 바라는 소망을 담았다. 독립운동 시기 40년의 의열투쟁을

두루 다룬 최초의 장편소설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제1편은 1910년대 최고의 무장항일운동단체 대한광복회를 다룬 소설 <대한광복회>이며, 제2편은 1920년대 최고의 무장항일운동단체 의열단을 다룬 소설 <의열단>이다. 3부작을 완성한 제3편 <한인애국단>에서는 1900년대부터 1945년까지 일어난 의열투쟁 전체를 소설에 담았다. 전반부에서는 안중근을 비롯한 1900년대 의열투쟁과 대한광복회의 활동을 다룬다. 또 후반부는 의열단과 이봉창·윤봉길·김홍일 등 한인애국단 지사들의 거사를 중심으로 했다.

독립운동기 시대의 의열 항쟁사를 담고 있는 만큼 김구·이봉창·윤봉길·이화림·이덕주·유진만·최흥식·유상근 등 지사들이 활동한 1930년대 최고의 무장항일운동단체 '한인애국단'을 제목으로 정했다.

이 책을 쓴 정만진 동문은 사단법인 역사진흥원 초대 이사장과 대구한의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외래교수, 대구외고 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정읍사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 펴낸 <대구 독립운동 유적 100곳 답사여행>은 '2019 대구시 올해의 책'에 선정됐다.



권준수(65회)
“나는 왜 나를 피곤하게 하는가”
나를 괴롭히는 ‘뇌의 딸꾹질’ 강박증상의 모든 것

현대인은 모두 강박증 환자다?
 “강박증? 그거 내 얘기 아냐?”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요즘 강박증에 관한 책을 쓰고 있다고 했더니 대뜸 이런 대답이 튀어나왔다. 재미있는 것은, 이 친구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왜 그랬을까?

강박증은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반해 일반의 인식은 매우 부족한 질환이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강박증에 대해 '그거 내 얘기 아냐?' 하는 반응을 보일까?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무언가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인 경우가 많다. '내가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강박증이다.

강박증, 4번째로 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정신질환 강박증이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나 충동이 자꾸 떠올라 이로 인해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반복적으로 일정한 행동을 하는 질환이다. 더러운 것이 묻었으리라는 생각에 손을 자주 씻거나 반복적으로 샤워를 한다든지, 문을 잠그고도 안심이 안 돼서 수시로 점검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데 반해 일반의 인식은 매우 부족한 질환이다.

강박증은 정신병이 아니다. 정신병에 걸린 사람은 보통 현실감이 없다. 자신의 증상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본인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강박증은 그 누구보다도 환자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우며 자신의 증세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다. 스스로 자신의 증상을 조절할 수 없고, 마치 어떤 큰 힘에 의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강박증 전문가가 알려주는 강박증의 모든 것!

권준수 교수는 강박증 전문가이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2년간의 연수를 마치고 1998년 귀국해 국내 최초로 서울대학교병원 강박증 클리닉을 개설하여 운영해 왔다. 우리 사회에 강박증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환자와 치료자 모두를 위한 책 <나는 왜 나를 피곤하게 하는가(2000년)>를 써서 많은 독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이번 책에서는 세월이 흐르면서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게 된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대폭 추가했다. 이 책을 통해 강박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강박증이란 어떤 병인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가족들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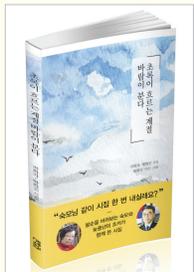
김주노(65회)
“2·28민주운동 영문번역서 발간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10월16일 2·28민주운동 영문번역서 'The february 28th Demoracy Movement : Korea's First Democracy Movement' ('2·28민주운동 :한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이다.)를 출간했다.

이 영문판의 번역은 경북대 영어영문학과 김주노 교수와 같은 과 박사 과정 재학 중인 미국인 Robert William Jones Jr.가 담당했다.

이 책은 총 4개의 장과 1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었으며, 부록에는 2·28민주운동 관련 40여 장이 수록되었다. 2·28민주운동의 배경부터 전개 과정 및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다.

김주노 교수는 “이 번역서는 2.8기념사업회에서 ‘2.28 민주운동 40년사’의 내용을 축약해 편집한 2.28개론서를 영문으로 번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화진(69회)
“초록이 흐르는 계절 바람이 분다”

박화진 동문이 팔순을 바라보는 속모와 함께 쓴 시집을 발간했다.

“초록이 흐르는 계절 바람이 분다”는 이 시집은 백세 시대, 노인의 삶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함께 시집을 만들며 가족 공동체의 울림을 체험하고 은퇴의 갈림길에서 새로운 기운을 찾게 해주는 시집이다.

그동안 박화진 동문은 몇권의 수필집과 시집을 내며 인생을 기아로 고통받는 아프리카를 돕기위해 유니세프에 기증 해왔다.



계성문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계성문학] 2021년 제36호 발간

1981년 모교 창립75주년 기념으로 창간된 [계성문학] 올해 창립40주년을 맞아 기념호 로 계성문학 제36호를 발

간했다

특히 이번 호는 코로나19나태에 걸맞는 (코로나시대의 삶과 문학)이란 주제로 이재윤,전재규등 6명의 동문의 작품으로 특집을 엮었으며 <박목월 시를 다시 읽다>를 제2 특집으로 했다.

그리고 창립40주년에 맞추어 <계성문학,문학계성 그 40년을 돌아본다>는 주제의 작품으로 실어 창립 40주년의 의미를 되살렸다

특히 이번호는 회원들의 작품에 이어 노태맹 동문의 희곡, 정만진 동문의 시나리오를 수록하여 계성문학의 장르별 작품 수록의 폭을 넓게 했다.

그동안 동창회와 여러 동문들의 협찬으로 <계성문학> 속간 작업을 계속 할 수 있었는데 2020년도 재정적 문제로 속간이 어려웠으나 여러 동문의 관심과 협조로 제36호가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창간 당시나 40년 지난 오늘이나 계성문학이 지향 하고 있는 계성 정신과 그 문학계성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홍영사 국판 272면 (정가15,000원)

계성이라는 터닝포인트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다.



108대 학생회장
석민서

따뜻한 햇살로 반기던 봄의 인사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눈발이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운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마음만을 전해야하는 울겨울은 유난히도 더 춥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본다면 혼자서 눈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바쁘게 달려온 길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생긴 것 아닐까요?

한 해의 끝을 맞아 계성고등학교에서 보낸 3년을 돌아보면 그 시간은 제게 ‘**터닝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시절, 저는 소심하고 조용한 학생이었고 계성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더 적극적인 학생이 되고자하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용기 있게 도전한 실장 선거와 동아리 부장 선거에서 떨어지면서 쓰라린 실패를 경험해야했습니다. 그 실패는 제가 다시 소극적인 학생으로 되돌아가게 만들 수 있었습니

다. 하지만 계성고등학교의 선생님과 친구들은 제가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위의 위로와 응원 덕분에 저는 실패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 소극적이고 평범한 학생에서 다양한 학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학생회장이라는 자리에서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터닝포인트가 될 만한 사건의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전환점을 마주하고자 하는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 또 적절한 환경도 주어져야합니다. 제게는 그러한 환경이 계성고등학교였습니다. 계성고등학교라는 하나의 사소한 선택이 인생의 큰 터닝포인트가 되어 제 삶을 180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모든 삶에는 터닝포인트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와 크기는 제각각일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다가온 작은 변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결국 자신의 한계를 이겨내고 한발 더 성장하는, 터닝포인트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김용택 시인의 ‘안녕, 피츠버그 그리고 책’이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인생은 마치 시 같아. 난해한 것들이 정리되고 기껏 정리하고 나면 또 흐트러진다니까. 그렇지만 아빠, 어제의 꿈을 잃어버린 나무같이 바람을 싫어하지는 않을 거야.’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행의 시간을 절망으로 여기는 사람과 그 시간을 하나의 터닝포인트로 인식하는 사람의 미래는 정반대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계성고등학교라는 터닝포인트는 제게 또 하나의 실패와 좌절일 수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고 다시 일어나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늘 그런 평범한 하루, 또는 그런 평범한 하루보다 조금 행복하거나 조금 불행한 하루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매일을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만들 수 있는 건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뿐이라는 걸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를 지향하고, 변화를 포용하는 계성인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KEISUNG Alumni VOL 67

모교소식



계성인의 상징 - 50계단 가을모습
(1936년 완공)

2020 수험생 격려기도회 가져

고등학교 수험생들을 위한 격려기도회가 2020년 11월25일(수) 학교 덕영실에서 고3 재학생들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한마음 한 뜻되어 기도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2020년 신입생모집 입학설명회 개최

2020년 11월 14일(토) 본교에서 2021년 신입생 모집을 위한 2차 입학설명회를 가졌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을 미리 받았으며 당일 행사에 참여해주신 학부모와 학생들의 협조로 (KF94마스크 및 라텍스 장갑 착용) 질서정연하게 설명회가 진행 되었다.



제 1회 점심시간을 이용한 미니콘서트

점심시간 막간을 이용한 미니콘서트가 본관 1층 로비에서 열렸다. 관현악부 창제/ 자율동아리, 음악과(수평동아리)의 주관으로 피아노 독주, 중주 천 개의 바람이 되어 외 2곡을 연주하였다.



중3학년 초청 수학 과학 캠프

2020년 11월7일 본교에서 수학, 과학 캠프가 열렸다. 대구시내 각 중학교에서 사전 신청을 받은 83명(16개중학교)의 중학생들이 중학교 선배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고 수학, 과학 동아리 체험시간을 가졌다.



환경보호 연합자원 봉사활동

지난 2020년 10월 24일(토) 와룡산 해맞이 ㄷ공원 인근 환경보호 연합자원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25명의 재학생이 2시간 동안 봉사한 이날 등산반 학생들의 안전 가이드 속에 원활이 진행 되었고 환경보호단체 샤프란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했다.



제6회 인문학 발표 한마당

제6회 후마니타스(인문학 발표한마당)을 실시하였다. 10월23일 본교 덕영실에서 예선전을 거치며 결선에 오른 7개팀이 동아시아 근현대사를 통해 과거, 현재, 미래를 본다는 주제로 개최하였고 심사위원 으로는 강병규, 박종관, 손유주 교사가 선정 되었다.





2020년 과학명사 특강

면역치료제 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김태돈(79회동문)박사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온라인 학습이 기러지고 있어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이 제한받는 상황이다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명사와의 “화상특강”은 또 다른 흥미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생각해 이번 강연을 준비했다.

2020년 대학진학 결과

서울대	5	경제학부, 기계공학전공, 식물생산과학부, 영어교육과, 의예과
연세대	11	간호학과, 경영학과(2), 경제학부, 교육학부, 기계공학부, 독어독문학과, 신소재공학부, 신학과(2), 실내건축학과
고려대	8	기계공학부(3), 미디어학부, 수학과, 영어교육과, 의과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서강대	7	경영학, 글로벌한국학, 기계공학(2),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 유럽문화, 전자공학
성균관대	12	건설환경공학부, 공학계열(2), 글로벌경영학, 글로벌경제학, 러시아어문학, 사회과학계열, 생명과학, 의예, 자연과학계열, 전자전기공학부, 한문교육
중앙대	11	간호학과(2), 광고홍보학과, 기계공학부, 사회과학대학(2), 산업보안학과, 식품영양, 창의ICT공과대학(2), 체육교육과
경희대	10	경영학과(2), 기계공학과, 무용학부, 의류디자인학과, 의예과, 전자공학과(3), 지리학과
한국외대	6	경영학부(2),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영어통번역학부, 한국어교육과, ELLT학과
서울시립대	7	건축학전공, 경영학부, 기계정보공학과, 물리학과, 자유전공학부, 토목공학과, 환경공학부
이화여대	2	유아교육과, 의예과
경북대	114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응용화학공학부,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 등
부산대	11	건설융합학부, 경영학과(2),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산업공학과, 식물생명과학과, 실내환경디자인학과(2), 행정학과(2), 화학과
의치한	10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동국대(2), 서울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이화여대, 인하대
사관학교	2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특수목적대	6	DGIST(3), KAIST, UNIST(2)
교대	8	대구교대(3), 부산교대(2), 제주교대, 진주교대(2)
해외대학	5	교토대학교(2), 위스콘신주립대(3)

회보구독료 납부내역 (2020.1.1 ~ 2020.12.30)

성명	기수	금액
이형두	30	20,000
김동식	42	20,000
박동섭	47	20,000
박 실	48	20,000
장은식	49	20,000
윤종두	49	20,000
이춘섭	49	30,000
무 명	50	20,000
여오영	51	20,000
최윤호	51	20,000
이광호	52	20,000
김수호	52	20,000
명우진	52	20,000
김시우	52	100,000
김윤식	52	100,000
장재기	54	20,000
손인규	54	20,000
송종수	57	20,000
무 명	57	20,000
김종식	57	20,000
정병철	57	20,000
백명현	58	20,000
홍진중	59	100,000
무 명	60	20,000
김종운	60	20,000
김진하	61	20,000
김언양	61	20,000
박찬동	61	50,000
정득환	63	20,000
장태진	63	20,000
김국영	64	20,000
전형배	64	20,000
오상달	65	20,000
김진걸	65	100,000
김병윤	65	20,000
강민구	65	20,000
천강현	65	20,000
우희대	66	20,000
소 계		1,120,000

성명	기수	금액
금교언	66	20,000
심영수	67	20,000
김원조	69	20,000
이인수	69	20,000
이성원	70	20,000
이윤희	70	20,000
조언호	71	20,000
권혁태	82	20,000
무기명		20,000
소 계		300,000
합 계		1,420,000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0년도 계성동문 조사 내역)

성명	기수	내역	월일	성명	기수	내역	월일
이형두	30회	본인상	5월24일	이재학	65회	빙부상	7월24일
박성진	42회	본인상	1월14일	김진관	65회	모친상	6월23일
이종학	45회	본인상	11월3일	김만기	66회	모친상	9월9일
김태경	46회	본인상	11월23일	김형일	68회	부친상	2월6일
최연호	52회	본인상	9월13일	손송	68회	빙모상	2월17일
이승모	53회	부친상	5월24일	김국진	68회	본인상	2월20일
양덕준	56회	본인상	6월11일	이재문	69회	모친상	5월24일
박찬희	56회	모친상	7월23일	이창우	69회	부친상	5월24일
이수파	57회	부친상	3월30일	김진수	69회	모친상	11월9일
임성광	57회	본인상	12월3일	이동훈	69회	부친상	9월15일
장동희	58회	본인상	8월25일	윤희웅	69회	부친상	10월13일
이전기	59회	모친상	1월30일	손민수	69회	빙부상	10월20일
황재호	61회	본인상	6월19일	장덕창	69회	모친상	10월23일
김종윤	63회	본인상	12월1일	김예수	70회	본인상	2월7일
이영목	63회	모친상	11월9일	권혁태	82회	빙모상	11월11일
김동욱	65회	모친상	11월9일				

